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13:30~17:30

장소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에메랄드홀

주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 행정안전부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BDI 부산연구원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프로그램

개회식		
13:30~14:00	개회사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환영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축 사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기조 강연		
14:00~14:30	**지방소멸대응 위한 남해안권 관광전략**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경남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14:30~14:40	휴식	
주제 발표		
14:40~15:00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15:00~15:20	**빅데이터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분석: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15:20~15:40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김병국**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15:40~16:00	휴식	
16:00~17:30	라운드 테이블	좌장 |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토론 |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박봉철**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 가나다순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목차

개회사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 1

환영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 2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4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6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8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 10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12

축 사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 14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 16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 1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20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 22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 24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 26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 28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 30

기조 강연

지방소멸대응 위한 남해안권 관광전략 ····· 33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경남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주제 발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 ····· 59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빅데이터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분석: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 81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97
김병국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종합 토론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 121
박봉철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 124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 126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 130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 133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 135

개회사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지방의 지속 가능 활력을 복원하는 과업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지역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여 이를 정책의제로 가시화하는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감마저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범정부적 정책 기조를 새롭게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법령의 제정, 예산 구조의 개편 노력이 다각적으로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원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서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심화될 수 있는「공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의 토론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정책방안이 집약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공직자·학자·시민단체들의 지혜가 모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울산대학교 총장 **오 연 천**

환영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 인구와 모든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역전현상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비중을 추월하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7월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원하는 지원과 지방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4대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방이 “저출산고령화”와 “소멸”이라는 큰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중심의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지방시대위원장 우 동 기

환영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지방소멸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때에 오늘 부산에서 열리게 된「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 9월말 기준 약 330만 명까지 감소했으며, 고령화 정도에 있어서도, 부산은 2015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고령화율 20.4%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 교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두터운 벽이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100대 기업 본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를 바라는 지역의 청년들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국가 불균형의 상황에서는 지방소멸의 극복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수도권이라는 한 바퀴로 굴러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또 다른 성장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수도권이라는 한 바퀴가 아닌, 두 바퀴, 세 바퀴로 굴러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국산업은행 이전,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에 노력을 다하는 것도 부산을 남부권의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의 바퀴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대 특구 도입을 통해 지방시대를 본격화하는 등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참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환영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이 영남권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구절벽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극일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들조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고용, 교육, 문화,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방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유출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지방의 경쟁력과 활력은 날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역시,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극복하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열어갈 초석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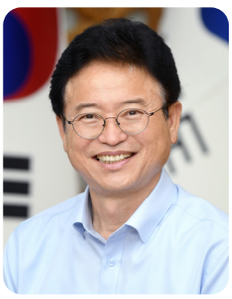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는 지방소멸에 대응함에 있어 단순히 현상에 대한 대증적 해결 방안만을 찾아왔을 뿐 근본적 원인을 찾고 처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지방소멸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는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환영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입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이 우리 경상권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을 비롯하여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으로 참석하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시군구 228개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은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3월에는 대통령이 7년만에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로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완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특화'시켜 지방에 살아도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지방의 자유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도전과 혁신으로 '지방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제안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공언하면서 인수위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까지 도출하였습니다.

지방시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경제발전, 민주화, 새마을 운동, 한류 등 성공의 경험과 고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환영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관광분야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럼 준비에 애써주신 우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인구 공유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대응을 위해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메카인 경남도는 현재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 등 신산업과 더불어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광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아 지역소멸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해양관광 도시로 조성하게 된다면,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이 모여드는 경남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전략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포럼에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10. 25.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환영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오연천 울산대 총장님,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이번 포럼을 후원해 주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럼 개최를 축하해주신 김형동 국회의원님과 안병길 국회의원님 그리고 조해진 국회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포럼의 기조강연을 준비해주신 고계성 한국관광학회 회장님과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송부용 경남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시는 전문가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포럼은 관광의 주제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지방소멸 대응의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자,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관련한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심화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 일 재**

축 사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와 함께하는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부산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지역구 부산 서구동구는 부산의 원도심지역으로 지난 20년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서구는 27.9%, 동구는 27.3%가 감소하여 전국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이 개최되어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서구동구는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재생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해양항만 수산업종 활성화, 의료 R&D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동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북항1,2단계 개발 등으로 원도심 명성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며,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서구와 동구의 활기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면서, 지방소멸을 막는데 큰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안 병 길**

축 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국가적 중대사인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소명이 된 지금, 오늘과 같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오연천 포럼 총괄의장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님,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올해 전체 시·군·구 299곳 중 118곳(51.8%)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난해보다 5곳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으로 이탈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 안동시도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만큼, 지역관광산업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넘어 지방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9월에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대안반영폐기)을 통해,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10. 25.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김 형 동**

축 사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해진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의견을 나눠주실 발제자·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8년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 처음 제기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었습니다. 당시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지방소멸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지 회의가 듭니다. 여러 가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있지만, 지방소멸 문제는 가장 절박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인식 하에서 제대로 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 지역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지역 모두 소멸 위험지역에 속합니다. 이들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 외에도 지역 내에서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지방 내부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을 서울의 아류 혹은 제2의 수도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특색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책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 적극적인 출산지원책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바뀌더라도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은 영남 지역의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영남 지역만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뜻깊은 토론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조 해 진**

축 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님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드는 동시에 전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면서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고용·기업 등 자원과 기회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생산성 저하와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지역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강점과 국민의 일상이 된 관광이라는 기회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활용한다면 지역관광 활성화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부여하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와 신설·이전 지방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기업 등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미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행정안전부 장관 **이 상 민**

축 사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입니다.

가을하늘이 맑고 청아한 시월의 좋은 날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산까지 먼 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이 1개월 뒤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관광'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지역별 특색을 잘 살린 지역문화의 융성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향할 때 사람들이 그와 반대방향으로, 전국 지역 곳곳으로 분산되게 하는 유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와 지자체, 경제계와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혁신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지역 관광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밀착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합계출산율 0.78의 초저출산과 수도권 과밀로 지역소멸과 지역대학들의 위기가 국가적 난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핵심인 우수 지역인재가 대학 진학시기에 대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른바 '인 서울' 현상은 지역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해 지역에 정주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확대 방안'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역시 위 양대 법률 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의 논의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방법을 찾아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부산대학교 총장 **차 정 인**

축 사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화입니다.

‘벚꽃엔딩’이라는 말로 전국 대학 입학생 수 증감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 입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학마다 가진 특성화보다는 소위 ‘인 서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수험생들의 선택이 갈라집니다.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일일생활권이라는 말은 수도권에 가서 업무를 보고, 진료를 받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었고, 더 나아가 수도권에 집을 두고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학이나 병원을 선택할 때 ‘유일한 선택지’가 서울, 조금 더 확대하면 수도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과 청년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고, 결국 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도 그 기반을 지방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소멸은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이 더욱 기대됩니다.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오연천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논의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연과 토론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경북대학교 총장 **홍 원 화**

축 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장실입니다.

경상권에서 개최되는「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지역별로 문제의 양상과 원인에 차이를 보이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관광형 생활인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 장 실**

축 사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입니다.

강원도 원주, 대전에 이어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의 부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정기조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런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이에 따른 지방소멸은 이 시대국가의 당면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 지역발전 4대 특구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와 더불어 문화특구의 도입을 강조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보건·복지·교육·일자리 등 국민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구축과 함께, 사람들을 유인하고 머무르게 하는 매력 있는 지역 조성이 포함됩니다. 문화와 관광은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여유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환경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이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에 있어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포럼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제 발굴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 세 원**

축 사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장 신현석입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철우 경북지사님, 박완수 경남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해주시고,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안병길 국회의원님, 김형동 국회의원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차정민 부산대 총장님, 홍원화 경북대 총장님, 오연천 울산대 총장님,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님,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송부용 경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도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관광과 연계된 지역발전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관광은 지역의 개성을 힘껏 살릴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입니다.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노력을 통해 여가를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재도약의 역량을 축적하고, 지역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과 특성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 방안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이번 포럼이 열리는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대도시의 역동적 엔터테인먼트, 장구한 세계사적 흔적 등 다방면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부산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도시입니다. 지금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토대로 세계와 보다 가까워진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웅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부산에도 유익한 시사점을 크게 제공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되시길 빕니다. 아울러 부산의 가을을 한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

부산연구원장 **신 현 석**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기조 강연

지방소멸대응 위한 남해안권 관광전략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경남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in 부산

지방소멸대응 위한 남해안권 관광전략

2023. 10. 25.

고 계 성 한국관광학회장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발표 순서

01 지금은 관광의 시대

02 지방소멸 대응과 관광산업

03 국내 관광정책 방향과 남해안권

04 남해안권 관광전략

05 마무리

지금은 관광의 시대

-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시작. 지금은 지방화시대. 남해안권 어느 지역도 예외 아님
- 지역발전 견인, 그 중 지역 자원과 관광산업의 융합형 창의적 사고 활용 산업발전 및 지역 경쟁력 확장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원동력으로 작용

일자리 창출 기회 및 수많은 사업 기회 제공

자원, 유산, 문화, 그리고 자산 가치 보존 기능

이제 관광은 자연스러운 사회문화적 현상

관광 du lịch

觀光 観光

Tourism toerisme

turizm Torismo

观光 પર્યટન

국가적 난제: 인구감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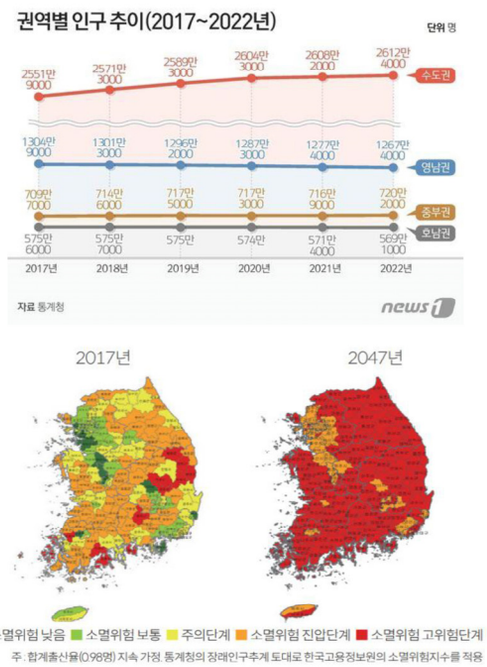
- 지금은 인구감소시대이자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 되었다는 위기의 시대
- 저출산, 고령화의 "늪"- 전국 시·군·구 40% 소멸 위기에 직면
-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하는 ' 지방소멸 시대 진입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줄어드는 '지역소멸 ' 시대 진입 분석도
-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 무너지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 지방소멸에 따른 난제 극복 대안 절실 – 관광산업의 역할 모색

'지방소멸' 도시로 확산…전국 시군구 40%가 소멸 위험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 지역 중심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
  - ▶ ONLY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 지속**
  - ▶ **특정 연령대의 유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수도권 기회제공 여건과 보상심리, 그리고 진학과 취업**
  - ▶ **국토균형발전 등의 정책추진 불구 대안 모색 여의치 않음**

지역권 → **인구 유출** → 수도권



6대 국정목표

- 정치행정: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사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외교안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지방시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 **과제목표**

○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지원

[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지원 특례

분야	주요 내용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등
교육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학교 설립 기준 및 인가 특례, 교육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
의료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 등
주거·교통	이주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신축 및 주택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섬주민 및 섬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 및 요금 지원, 대중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지원 등
문화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
외국인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노후·유휴시설	노후·유휴시설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노후·유휴시설 복합적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강구 등
산업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제28조 정리

하혜영(2023).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54호.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체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과제목표

-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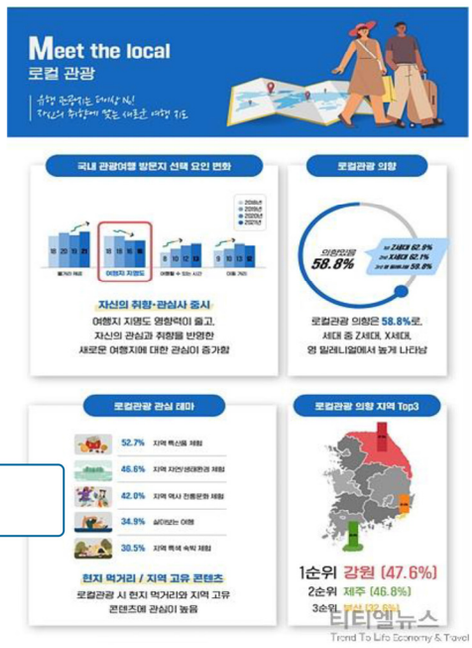
기대효과

관광산업 규모 ('19년) 108조원 → ('27년) 180조원, 외국인관광객수('19년) 1,750만명 → ('27년) 3천만명 달성

문화매력국가

- 지역 문화균형발전 사업 추진
  - 국제적으로 경쟁력 갖춘 관광거점도시 육성 통한 지역 특색 보존과 창조적 발전 추진
  - 야간관광 활성화 + 섬 관광 활성화 추진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 및 생태계 매력 확산
  - 전국 공연예술 창, 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 국가 상호 간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 달성 및 국내 문화분야 해외 진출하는 선순환 환경 구축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관광 트렌드도 지역관광 대세



- 지역(Local) 관광시대, 지역매력과 유산이 세계적 콘텐츠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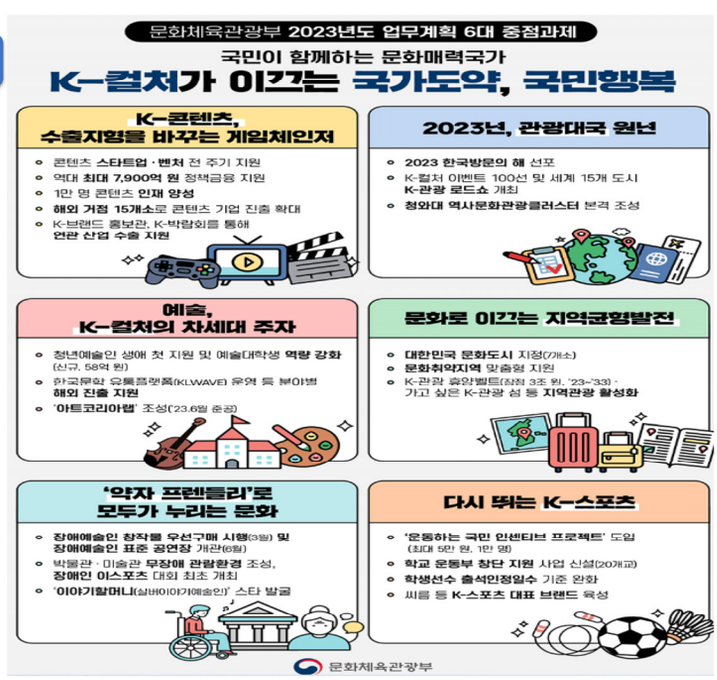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극복

K-Culture + Smart

(스마트·디지털 관광 전환)
- 스마트 관광도시 신규 조성(‘23년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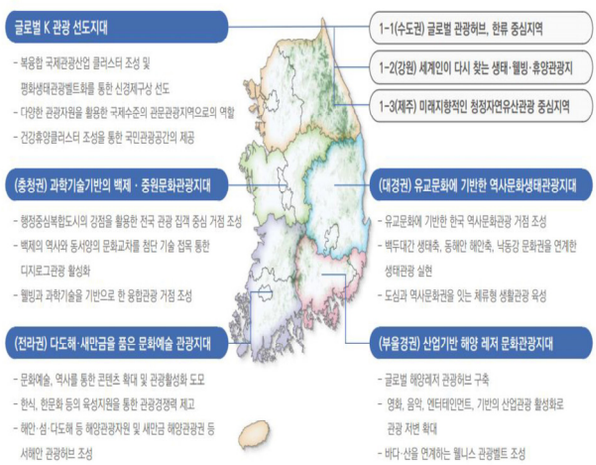
- 전통 관광업계와 여행 기술(트래블 테크) 기업 협력 연계망



지역소재 매력 콘텐츠 발굴과 소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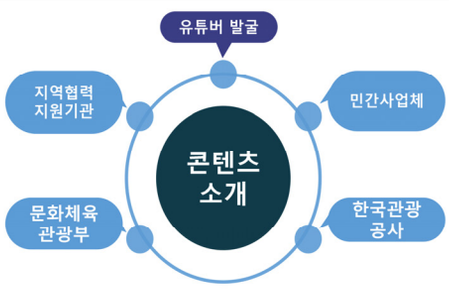
5(1³ +4)대권 기본방향



유튜브 채널 활용한 지역소재 매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소개

관광 성숙 지역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권역별 관광지 소개 외에 공감 콘텐츠(맛난 술안주와 지역음식, 지속가능한 환경유산 소개, 한류 장소, 역사문화 파헤치기, 지역 매력 소개 등) 제공 통한 심리적 거리감 해소 및 홍보효과



과연 대안은 있는가? 관광이 해법?

지방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다, 대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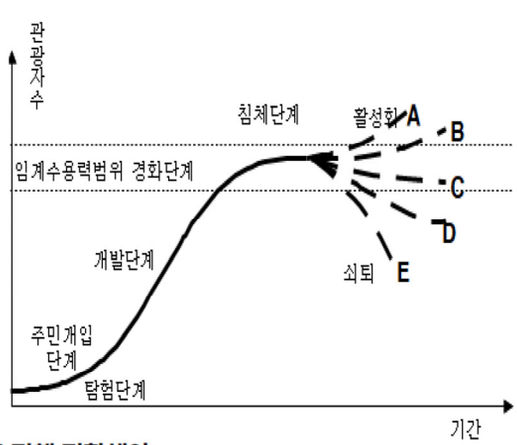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살기 위한' 수도권행, 인구절벽 가속화를 막아라

지방 소멸 대책, 일본 정책 베껴다 쓰면 해결 되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성공 여부 불확실한 정책

■ 지방소멸 대책 '청년 집중' 벗어나야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교육환경 등을 찾아 떠나는 청년인구의 '사회적 이동'인 점을 들어 정부 대책 역시 청년층의 지방 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에 집중돼있다. 국회예산처의 지난해 분석을 보면 지방소멸과 연관이 높은 저출산예산의 61%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에 재정 쏟아붓는데...지방소멸 위기는 왜 커지나

지방소멸 막으려면···'청년층 중심 아닌 세대통합형'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로운 인구 추계 모델

생활인구

- 2023년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 영위하는 사람
-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목적으로 특정지역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 외국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관계인구

- 특정지역에 완전히 이주,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치하고 있는 사람
- 관계인구 개념 시작 2016년 경 일본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주목
- 2018년 경부터 지방활성화(창생)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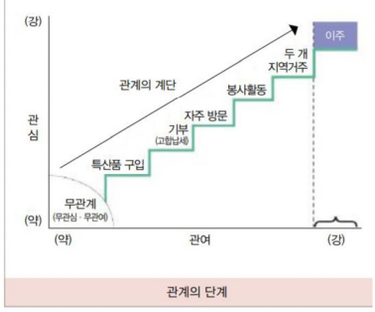
체류인구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를 지칭
- 국토교통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념
-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 제시(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 분석 통하여 체류인구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 통하여 관계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 및 지역 기여

인구 추계모델

[그림] 생활인구의 구성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체류인구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목적 등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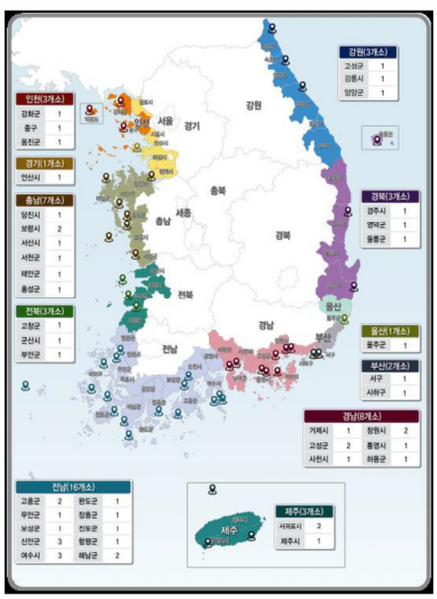
관계의 단계

관련 정책과 법, 그리고 제도

담당부처	사업명	소외 지역	청년 대상	지방정착 지원
교육부	대학창업활성화	-	o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o	o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o	o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o	o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o	o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o	o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조성	o	o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	o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o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o	o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o	o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o	o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o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o	-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o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o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개발	o	-	
	해안 및 내륙권발전사업 지원	o	-	

출처: 경북도 '일자리 정책...'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msn.com)

관련 정책과 법, 그리고 제도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 만든다… 2388억원 투입

행안부, 지자체와 협력해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신설…사업 성과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

▶ 귀어귀촌활성화, 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과 귀어인 7천 500명 달성 목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07.10 시행)

▶ 어촌뉴딜300(2022년 어촌뉴딜 사업대상지 50개소 선정, 제주권은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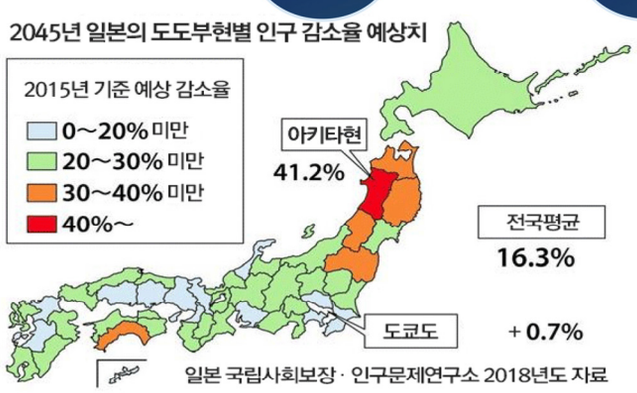
지방소멸 이웃나라 일본?

▪한국은 오늘 일본의 과거이고 한국의 미래는 일본의 오늘이다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2045년 일본의 도도부현별 인구 감소율 예상치



일본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2018년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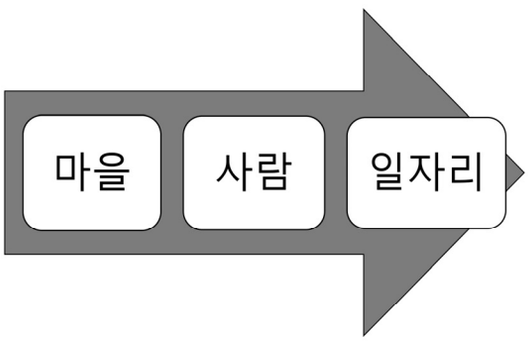
[사진 pixabay]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52908

2040년 일본 '지방소멸'...자자체 절반 896개가 사라질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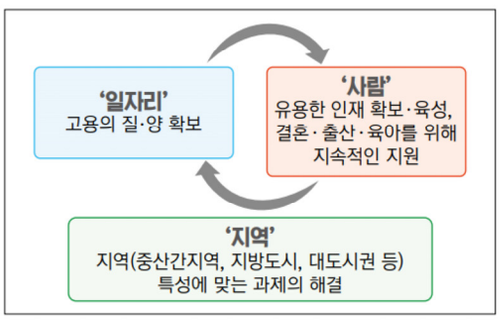
지방창생(地方蒼生)

지방창생(地方蒼生)

그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실행을 통해서 그 지역의 진흥을 도모한다



- 일본 아베정부 , 2014년 "지방창생법" 제정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설치 운영
-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 수립 실행
- "지역창생"은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린다 보다는~
- **새로운 지역을 만든다**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인구 개념 확장

정주인구	교류인구	관계인구
이주	교류, 체류	관계
이주형태_U턴, I턴, J턴 이주요인_손(孫)턴, P턴 등	관광, 재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 (방문형, 비방문형)
지역거주 증대	지역 내 소비력 증대(1:8:25:80)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

일본의 주요 지역활력 증진 정책

성장력 확보 | 인재육성 | **인구문제 해결** | **도시지역 연계강화** | 삶의 질 보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촉진, 지역매력도 증진 등 지역활력 증진 목적

© GDJ, 출처 Pixabay

국내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관광 및 지역관광 선순환 생태계 확립]

국내관광 수요 및 소비 촉진, 지역관광 매력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지역관광 체류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01	02	03	04
관광향유 기회 확대	관광 매력성 제고	지역 체류 기반 조성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누구나 즐기는 여행환경 조성	새로운 국내여행 즐길거리 발굴	지역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지역 특화형 관광콘텐츠 발굴

주 : 김현주(2023). 한국의 관광시장 현황 및 국내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한중 국제관광 온라인 세미나. 자료

지역 체류형 여행 기반 조성

지역 체류형 여행 기반 조성

-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등 관광과 연계한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문자 경제' 실현
  - 여행 친화형 근무제인 워케이션 확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확대
- 지역 소생 관광) 하루 더 머물고, 다시 방문하게 하는 콘텐츠 육성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관광콘텐츠, 인프라, 마케팅 지원 확대, 재방문 유도를 위한 관광주민증 발급 및 혜택 제공
- 야간관광) 야간관광 특화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체류 유도

워케이션, 생활관광 등 지역 체류형 여행 기반 조성

팜스테이(농촌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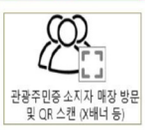
씨스테이(어촌체험)

마운틴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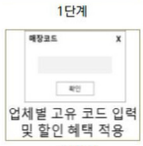
워케이션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등 지역관광 체류 확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부산 광안리 로드쇼

호주 비비드 시드니

프랑스 리옹 빛 축제

주 : 김현주(2023). 한국의 관광시장 현황 및 국내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한중 국제관광 온라인 세미나. 자료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및 콘텐츠 발굴

지역 특화형 관광자원 및 콘텐츠 발굴

- 지역 특화 광역관광개발로 '하루 더 쉼이 있는 여행환경' 조성
  - 영호남 연계 광역개발을 통한 문화 휴양 관광지대 구축, 글로벌 루트 연계 광역개발 추진
- 지역관광 거점도시 등 지역관광 활성화 거점 확대
  - 지역관광 거점도시 추가 선정 추진, 지역 주도형 계획공모형 사업 2.0 추진, 국제기구 공인도시 지역관광 홍보
  - 전 국토를 아우르는 여행 동선 구축(사통팔달 국도여행,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완성)
- 섬 관광, 해양레저, 농어촌, 문화유산, 산림, 생태관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 육성

지역 특화 광역관광개발

- 영호남 연계 광역개발) 문화 휴양 관광지대
- 글로벌 루트연계 광역개발) 광역 교통망 활용, 생태 웰빙 관광루트 개발

국제기구 공인 도시 지역관광 홍보

- 미식도시(전주), 영화도시(부산), 미디어아트(광주), 음악도시(통영) 등
- 핵심 콘텐츠 중심 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지원

JEONJU City of Gastronomy 전주 —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12

BUSAN CITY OF FILM —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GWANGJU — City of Media Arts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TONGYEONG CITY OF MUSIC 바다의땅 통영

다양한 체험관광 콘텐츠 육성

- 섬 관광, 해양레저, 농어촌, 문화유산, 산림, 생태
- 유관부처와 협력을 토대로 체험관광 콘텐츠 육성

주 : 김현주(2023), 한국의 관광시장 현황 및 국내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한중 국제관광 온라인 세미나. 자료

휴식과 힐링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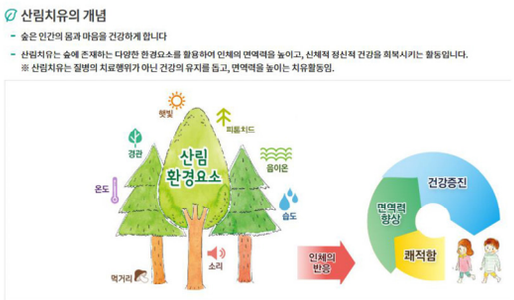
주 :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기회

-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여행의 재발견과 부상
-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관광 행태 출현(한달살이 체험, 워케이션 등)
- 힐링, 치유형 관광, 아웃도어형 관광수요 증가

여행에 대한 이미지는 힐링(29.8%), 휴식(24.0%)의 비중이 높음
코로나19의영향으로 휴식과 힐링 목적의 여행을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치유산업 법률안



해양 치유 프로그램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중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2021. 10.

구분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
관광거점지역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부산
연계핵심지역	신안, 해남	남해, 진주, 함양	울산, 통영, 김해
연계지역	전남남서권(목포,나주,화순,함평,영광,장성,영암,무안,장흥,진도,강진,완도,해남)	경남남서권(진주,사천,합천,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전남남동권(여수,순천,광양,구례,하동,곡성,보성,고흥)	경남 동남부 지역(김해,창원,거제,통영,양산,밀양,창녕,의령,함안)
광역관광권 개발목표	남도문화 예술지대 구축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구축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구축
관광여건	• 문화예술과 다도해 섬 경관, 남도문화가 어우러진 특성 보유 • 특히, 청정생태, 미식투어 등의 강점 보유	•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 교류 거점 • 산악,해양 문화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 특화 추진 중 • 자연, 감성을 키워드로 한 지역관광 강점 보유	• 산해류, 다양한 레저, 역사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광역관광권 특성 보유 • 다이나믹한 경관과 체험, 일상적인 관광경험이 넘치는 광역관광권 구축 목표
3개 광역관광권 공통	• 남부권 연계상품화 및 관광서비스 확대 (스마트관광 환승 시스템 개발, 선형관광자원 상품화) • 지역산업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선박,항공,미디어산업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및 상품 개발, 산악연계 유휴캠퍼스 복합관광공간 재생 프로젝트 추진 등)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 맞손-부산·전남·경남

천혜의 해양자원과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글로벌 신 해양 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케이(K)-관광을 견인하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육성 위한 공동 발걸음

2022 부울경 관광공사·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지자체 간 연구 및 데이터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 프로모션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부울경 관광·MICE산업 및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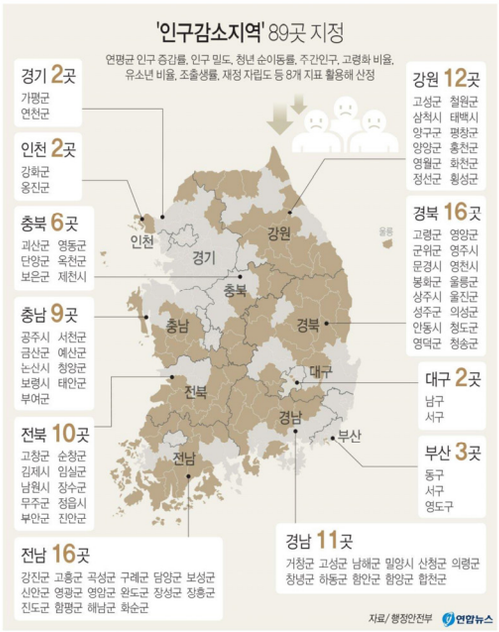
남해안권 지리적 특성

남해안권의 입지 여건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소재
- 일본과 중국 본토에 면함
- 입도수단은 항공과 선박
- 공항은 2곳(김해, 무안)
- 항구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

▸ 주변 1,000 km 이내 거대 관광시장 소재
- 중국 상하이 (2천만), 텐진(1천만) 등
- 일본 오사카 및 교토(1천만) 등
- 국제크루즈시대에 맞춰서 모항과 기항지 소재지

남해안권 행정구역 현황



김계리 인턴 / 20211018 /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남해안권 소재 다양한 자원 현황

World Heritage 세계유산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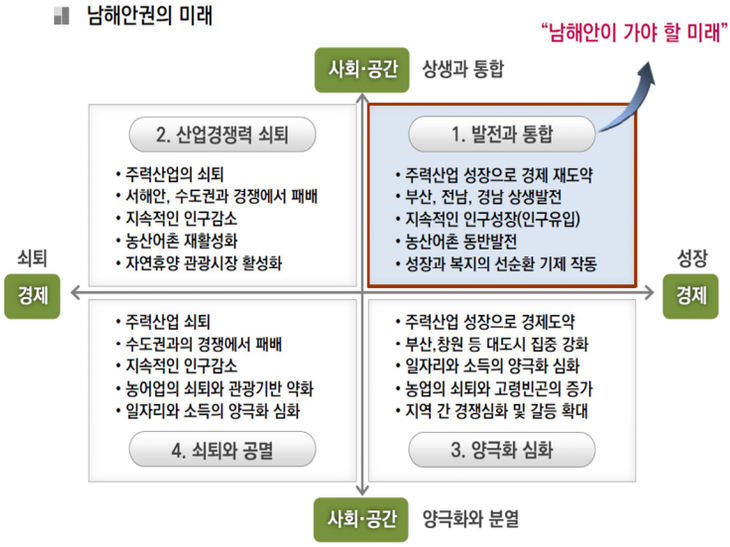
구분	자원명	위치	등재시기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부석사, 봉정사 등 7개 등재)	전남 순천 선암사	2018
		전남 해남 대흥사	
		경남 양산 통도사	
	고인돌 유적 (고창, 화순, 강화 등 3개 등재)	전남 화순	2000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등 9개 등재)	경남 함양 남계서원	2019
무형문화유산	강강술래	전남 일원 (진도, 화순, 해남 등)	2009
	판소리 (전남 서편제, 전북 동편제, 충남 중고제)	전남 일원 (서편제)	2005
세계기록유산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5.18 기념재단)	광주광역시	2011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해인사)	경남 합천 해인사	2007

자료 : 유네스코 한국의 유산지도(http://map.unesco.or.kr)

▸ 가야유적 고분군 7곳 묶은 세계유산. 한국 16번째 세계유산 등재
–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 고령군 지상동, 함안군 말이산, 고성군 송학동, 합천군 옥전,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등

남해안권 발전과 통합 위한 미래

남해안권의 미래



광역관광개발 현황

- 2000년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2000~2009)
  -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2000~2010)
- 2008년
  -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2008~2017)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2008~2017)
- 2009년
  -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2009~2018)
- 2010년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2010~2017)
  - 3대 문화권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2010~2021)
- 2013년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2013~2022)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2013~2022)
- 2017년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2017~2026)
- 2018년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2018~2027)
- 2021년
  - 남부권 관광개발(2021~2030)

시·도 넘는 `초광역권` 개발 본격화

- 정부는 지역별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및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1개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

  -남해안관광벨트개발(2000~2009년), 경북북부유교문화권관광개발(2000~2010년), 지리산권 관광개발(2008~2017년),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2008~2017년),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2009~2018년), 남해안관광클러스터(2010~2017년), 3대문화권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2010~2021년), 한반도생태평화벨트(2013~2022년),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2013~2022년),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2017~2026년),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2019~2028년)

- 남부권(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가 다수 산재해있고 수차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국인의 해외관광 수요를 대체하거나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남해안권 관광전략: 남해안권 사업 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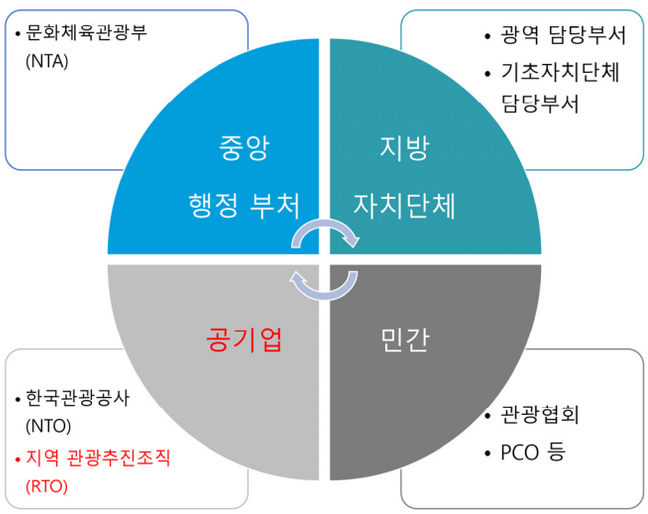
전남-경남, '남해안 종합개발청 건립' 등 공동 노력

입력 2023.04.18 (15:38) | 수정 2023.04.18 (15:39)

▶ 전남과 경남은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해 "남해안 종합 개발청" 을 정부기관으로 신설하고,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공동 개발 등 상생발전 협약 체결

▶ 기존 산발적 남해안 개발계획 국가차원 재조명
- 광역권 단위 비전과 전략 공유
- 행정구역 불일치 극복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예산과 권한 광역경제권 기구로 부여 필요

관광정책 추진조직 RTO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부산관광공사 BUSAN TOURISM ORGANIZATION

JEJU TOURISM ORGANIZATION

남해관광문화재단 NAMHAE FOUNDATION FOR TOURISM & CULTURE

GNTO 경남관광재단 GYEONGNAM TOURISM ORGANIZATION

전라남도 관광재단 Jeollanam-do Tourism Organization

관광시장의 트렌드 리더, 청년시장 분석

-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청년, 매년 9월 17일 "청년의 날"**
  - 청년세대의 디지털 콘텐츠와 SNS 활용에 적극적이고, 여행트렌드를 주도하는 트렌드 리더
  - 일상을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활동적인 여행세대이며 문화소비 트렌드도 유사함
  - 청년 프로젝트 추진 통한 새로운 문화사업 트렌드 주도 기회 모색

정부, 첫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

- 2020년 8월 시행된 데 따른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조사
- 국가승인통계로 국가통계포털 통해 공개
- 만 19~34세 청년 대상
- 총 8가지 부문 200여개 문항 구성

<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

부문	주요 조사내용
일반사항	▪ 가구 및 가구원 정보, 취약계층 식별(은둔, 고립, 영케어러 등) 등
주거	▪ 부모동거, 주거형태, 주거비, 주거환경(최저주거기준), 주거인식 등
건강	▪ 흡연·음주, 의료경험, 운동, 영양, 번아웃, 약물, 우울, 자살 등
교육·훈련	▪ 진학, 자기계발, 사교육, 대학(등록금, 졸업기간 등) 등
노동	▪ 고용형태, 근로시간, 소득, 초과근무·휴식시간, 이직·구직 등
관계·참여	▪ 도움필요여부, 정치·사회참여, 문화·예술활동, 외출 등
사회인식·미래	▪ 만족도, 행복감, 갈등·불평등인식, 결혼·출산계획 등
경제	▪ 지출, 소득(근로, 사업, 재산 등), 부채(학자금, 주택, 생활비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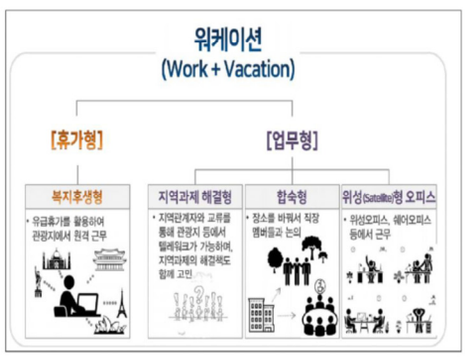
잊지 못할 여수 낭만포차

- **청년세대가 지속적으로 로컬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요**
- **지역 이해하고 바꿔갈 수 있는 인재 확보 철학 공유도 중요**

DMO (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 확대

- 지자체별 주도적인 관광체계 수립과 홍보 등의 추진조직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년까지 50개 이상 DMO 육성 목표
- 지역관광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지속가능한 운영 위한 자생력 확보 방안 중요



출처: 신용석,강현수2021),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년관광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두레피디(PD)사업, 관광 빅데이터 활용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기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등 다수

남해관광문화재단-스트리밍 하우스 '협약', 남해각 관광플랫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0078700052?input=1195m

750만 재외동포 홈커밍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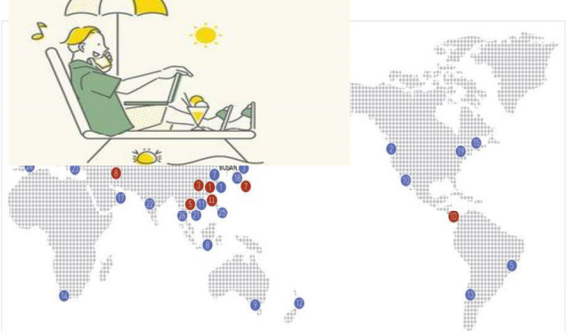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 총계(2021년 기준)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5	2017	2019	2021	백분율(%)	2019년 대비 증감율(%)
총계	7,292,485	7,539,821	7,493,587	7,325,143	100	-2.25



-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 남해안 스테이 홍보 + 재외홍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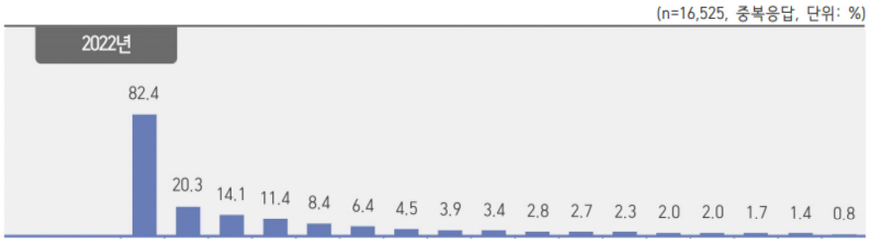
- 재외동포 중,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모든 분 한상임
  - 1년에 한번 교류정보 비즈니스 컨벤션이 "세계한상대회"
  - 매년 4,000여 명 참석, 2002년 시작, 21주년 맞이함
  - 기업투자확대, 일자리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의 네트워킹 기회

남해안 방문의 해 사업

(n=16,525, 중복응답, 단위: %)

▶ 한국 여행 중 방문 지역 (17개 시도)

- 한국 여행 중 방문 지역은 '서울' 이 82.4%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 (20.3%)이 높음
- '서울 ' 방문율은 2021년 대비 큰 폭 증가
- 남해안권 '경남' (3.4%), '전남' (2.0%)으로 조사됨
- 내국인 중심의 방문 유인도 중요하지만, 외래관광객 대상 다양한 유인전략 필요
- 남해안권을 알리고 방문 유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 필요



구분	서울	부산	경기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경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울산	충남	충북	세종
2022년	82.4	20.3	14.1	11.4	8.4	6.4	4.5	3.9	3.4	2.8	2.7	2.3	2.0	2.0	1.7	1.4	0.8
2021년	57.7	16.4	22.1	5.0	13.1	5.6	5.0	2.5	8.1	4.2	3.0	2.8	2.7	3.0	4.5	3.3	0.9
2020년	47.2	10.5	25.7	2.4	11.9	4.7	4.1	3.4	6.5	4.0	3.4	3.0	2.4	2.8	6.6	4.5	1.8
2019년	76.4	14.1	14.9	9.9	8.0	7.8	3.5	3.1	1.7	1.5	1.7	1.1	0.8	1.0	1.4	1.1	0.4

테마여행 길, 섬 트레킹 프로젝트 연계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1 남도 이순신길 조선수군 재건로

-대상: 전라남도 8개 시·군(진도~구례)
-사업기간: 2014~2015년
-사업비: 39억원(국비 23억원, 지방비 16억원)
-길이: 500km(차로 380km, 탐방로 120km)
-내용: 탐방로 정비, 안내해설판 설치 등

이순신 둘레길

-경상남도 6개 시·군 연장 총 144km

2 이순신 호국길(17km, 노량해전 기념)
3 이순신 바닷길(60km, 사천해전 기념)
4 당항만이순신둘레길(4km, 당항포해전)
5 한산대첩길(26km, 한산대첩 기념)
6 진해바다70리길(29km, 합포·안골포·웅포해전)
7 이순신둘레길(8km, 옥포대첩 기념)

8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2019년 문체부
-총 90개 코스 1463km
(경남 42개 635km, 전남 43개 828km)

자료=경남도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누리집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39개 지자체를 선정, 전국의 10개 권역으로 묶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주제가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World Heritage 세계유산

(단위 : 개)

구분	자원명	위치	등재시기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부석사, 봉정사 등 7개 등재)	전남 순천 선암사	2018
		전남 해남 대흥사	
		경남 양산 통도사	
	고인돌 유적 (고창, 화순, 강화 등 3개 등재)	전남 화순	2000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등 9개 등재)	경남 함양 남계서원	2019
무형문화유산	강강술래	전남 일원 (진도, 화순, 해남 등)	2009
	판소리 (전남 서편제, 전북 동편제, 충남 중고제)	전남 일원 (서편제)	2005
세계기록유산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5.18 기념재단)	광주광역시	2011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해인사)	경남 합천 해인사	2007

자료 : 유네스코 한국의 유산지도(http://map.unesco.or.kr)

▸ 가야유적 고분군 7곳 묶은 세계유산. 한국 16번째 세계유산 등재

–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 고령군 지상동, 함안군 말이산, 고성군 송학동, 합천군 옥전,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등

공항활성화 및 연안크루즈 시대 준비

국내 15개 공항 중, 6개소 남부권 위치

김해,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취항 운영

무안은 승무원부족 등 주당 1회씩 운항 줄임

국제선과 국내선 추가운항과 정기노선 취항?

▸ 부산은 2026년 크루즈특구 지정 및 선사 설립 추진하면서 크루즈관광객 30만명 목표

▸ 여수는 2026년 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 해양수산부 3년만에 연안 크루즈체험단 시작(한국~일본, 부산권 등)

한국형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지역사회통합돌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 케어 복합적 개념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포함

미국, 일본의 CCRC 사례 비교

구분	미국의 CCRC	일본의 CCRC
사업주도	민간주도	정부주도
목적	영리목적 고급형 실버타운	지방살리기 목적 자생 커뮤니티 육성
수요대상	부유한 은퇴자	평범한 서민층 은퇴자
규모	약 2,000여 개 조성, 75만명 거주	200여 개 자치단체 참여(전국 11%)
위치	기후 온화, 경치 좋은 곳 (버지니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 근교 지방
장점	대규모 주택단지,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적인 케어로 생애 최후까지 보장	저렴한 입주비용 및 생활비 토착주민과의 활발한 교류
단점	비싼 입주비용 및 생활비 넓은 부지와 많은 예산 소요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케어) 필요 거동불편 시 간병기관으로 이동
대표사례	선시티(Sun City)	생애활약마을

남해안과 茶陶古道. 교류 협력의 시대

자료출처: Doopedia.co.kr

마무리

- 지역 균형발전은 국정과제이자 모두에게 부여된 역할
- 지역 인구유출 따른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모두의 과제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영역 개척-지역 문제 해결 노력 고무적
- 풍요로운 남해안권 설계 위한 노력은 우리와 미래세대

감사합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주제 발표 1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

최경은 관광정책연구실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

2023. 10. 25(수)

최경은 관광정책연구실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

목 차

01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0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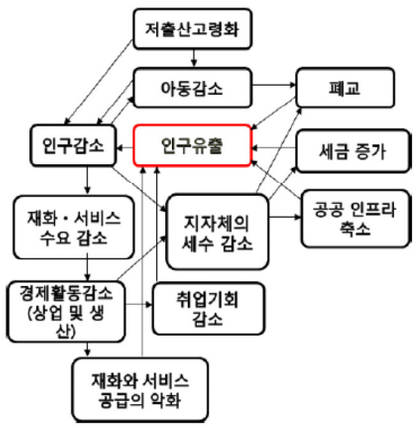
0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0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3



자료: 이상림 외(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지역 쇠퇴와 인구 감소의 악순환 관계

- 인구 감소는 사회경제적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지역 거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을 야기

-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지역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국가 전체적인 문제와도 직결

1.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4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자료: 차미숙·최예술·조은주(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제57호,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 발전 및 활성화의 주체로서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중요성 대두

1.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5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전략	추진 과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1. K-관광 매력의 대대적 확산으로 시장 다변화 2.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3.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서비스 제공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1. 규제 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 2.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3. 고성장 융복합 시장으로 영역 확장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1. 국내여행 수요 촉진 2.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3.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안전 확립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1.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 2.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3.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12.1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6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방문자 경제' 실현

체류형 여행모델 확산

- (워케이션) 지역관광 수요 증대, 체류 증대, 시기 분산(휴가철 → 비성수기, 주말 → 평일)을 가속화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
- (야간관광) 콘텐츠·경관명소·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12.1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1.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7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방문자 경제' 실현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방인구감소 문제 대응

- (관광협의체 구성) 문체부, 지역관광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한 **'지역관광 활력 거버넌스'** 구축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콘텐츠 지원) 전통문화, 명사 등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 유휴시설 활용한 이색 숙소 조성 지원 및 지역 숙박 여건 개선
  - 할인혜택 제공으로 재방문 유도하는 **관광주민증** 발급
- (생활관광) 일상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확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12.1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1.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8

생활관광 사례

▌**(전남강진 사례)** 푸소(Fu-So)는 일주일 간 ①주민 밥상 체험 ②조업 체험 (농업, 어업, 도예 등), ③숙박 체험, ④지역주민 교류를 통해 **독특한 지역 체험과 정서적 교감**을 관광객에게 제공

• 2021년 푸소농가 직접 소득 3.71억원 증가,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 1.28억원 발생

주민 밥상 | 어업 체험 | 강진 달빛 한옥 마을 | 지역 주민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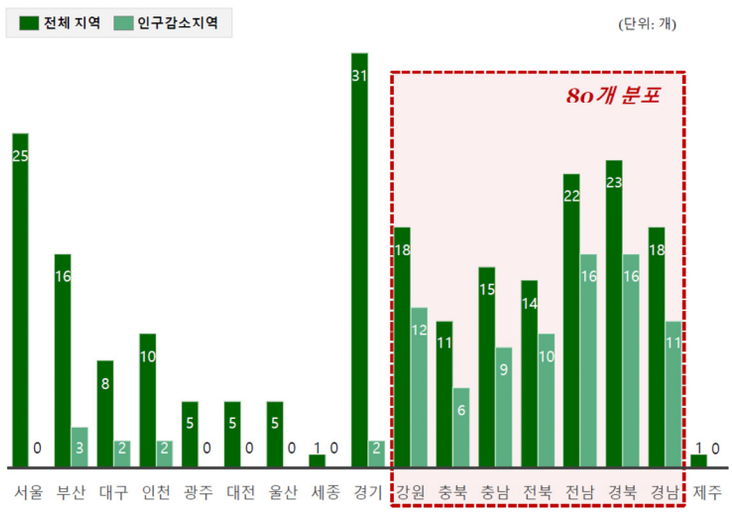
지료: 관계부처 합동(2022.12.1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죄)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e3d33c65-64c2-42d6-bd55-78fdf04388c3(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9

광역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현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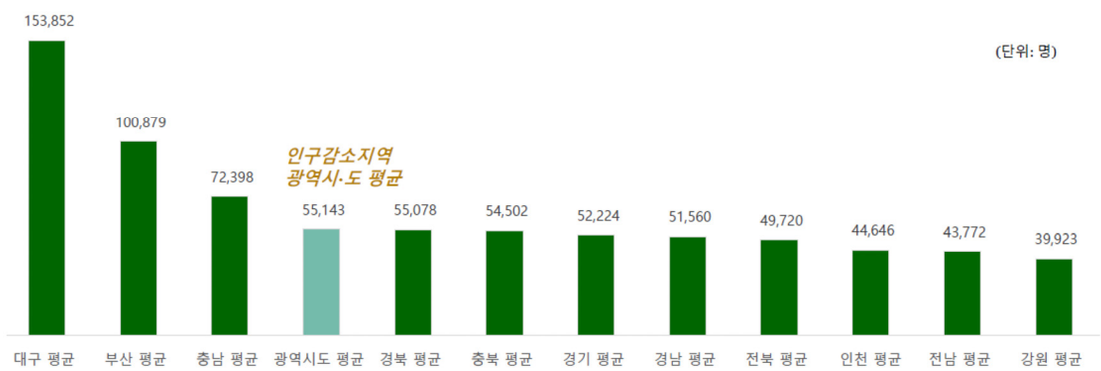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0

광역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평균 정주인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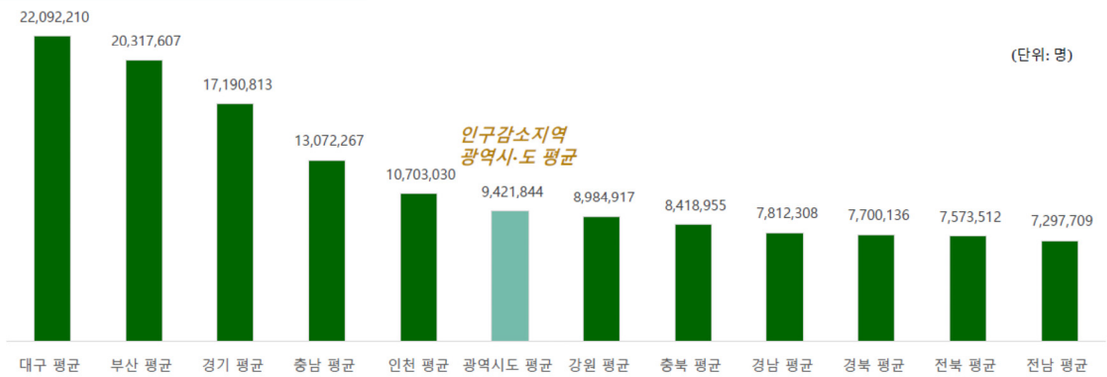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1

광역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평균 방문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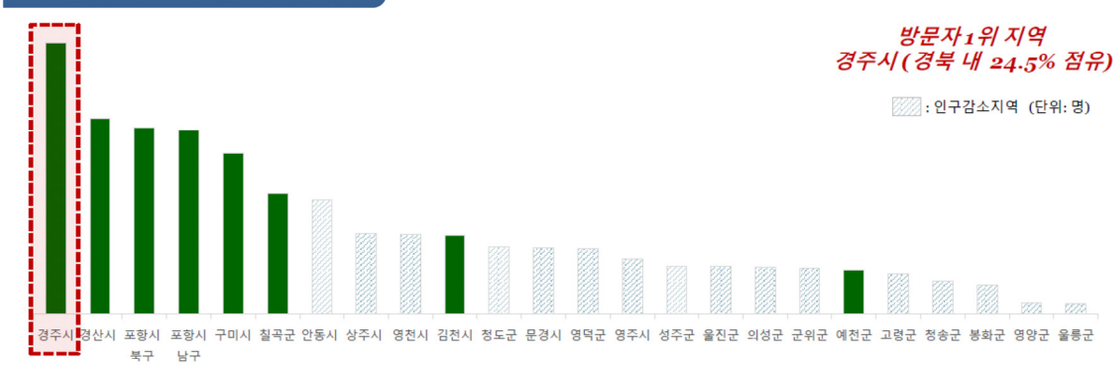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2

경북 방문자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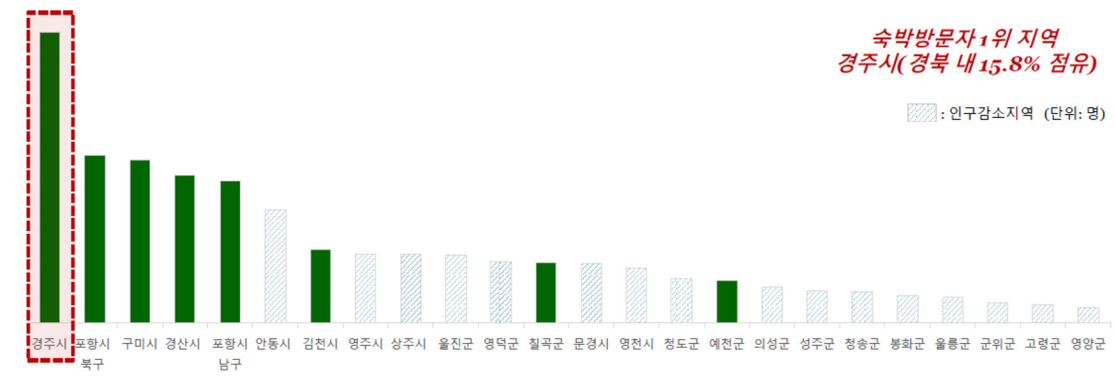
지역	경주시	경산시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	구미시	칠곡군	안동시	상주시	영천시	김천시	청도군	문경시
방문자	39,555,972	28,480,798	27,166,840	26,782,158	23,461,248	17,627,976	16,771,614	11,745,444	11,602,804	11,525,375	9,838,620	9,684,500
지역	영덕군	영주시	성주군	울진군	의성군	군위군	예천군	고령군	청송군	봉화군	영양군	울릉군
방문자	9,562,730	8,104,318	7,088,732	7,013,079	6,870,825	6,777,070	6,471,845	5,948,460	4,840,849	4,178,569	1,711,941	1,462,617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3

경북 숙박 방문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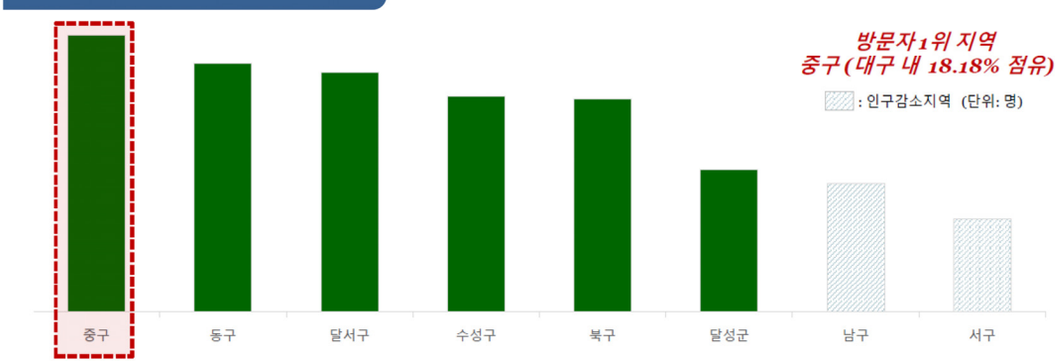
지역	경주시	포항시 북구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남구	안동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울진군	영덕군	칠곡군
방문자	8,424,618	4,853,324	4,722,047	4,287,705	4,130,174	3,278,965	2,128,910	2,017,548	2,000,443	1,976,544	1,790,011	1,763,438
지역	문경시	영천시	청도군	예천군	의성군	성주군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군위군	고령군	영양군
방문자	1,739,180	1,613,504	1,279,801	1,221,869	1,036,712	931,775	906,716	803,679	752,171	570,347	520,375	443,853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4

대구 방문자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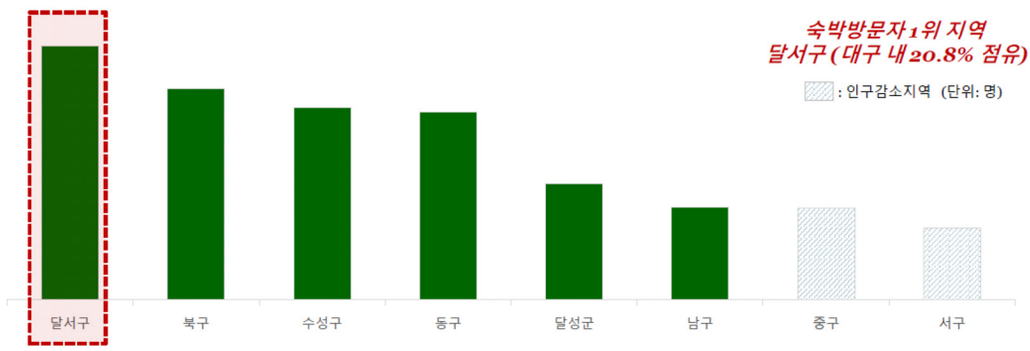
지역	중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방문자	55,342,584	49,543,526	47,685,204	43,061,175
지역	북구	달성군	남구	서구
방문자	42,479,174	28,315,494	25,650,762	18,533,657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5

대구 숙박 방문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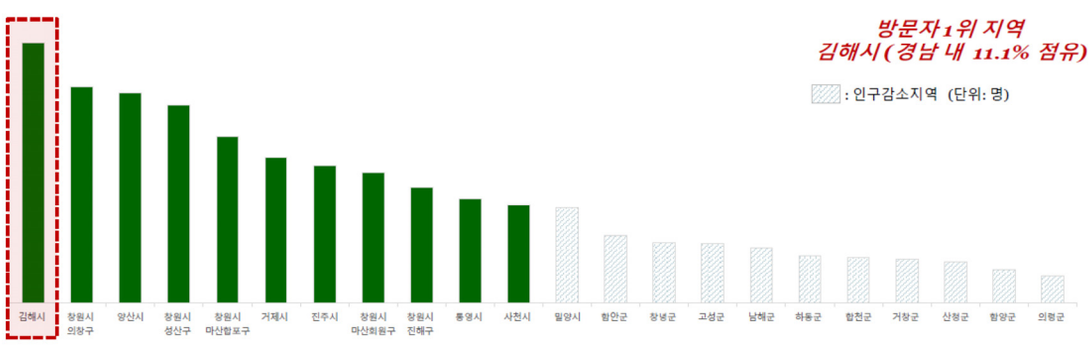
지역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방문자	6,779,199	5,649,174	5,140,242	5,026,566
지역	달성군	남구	중구	서구
방문자	3,115,105	2,469,492	2,438,090	1,909,206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6

경남 방문자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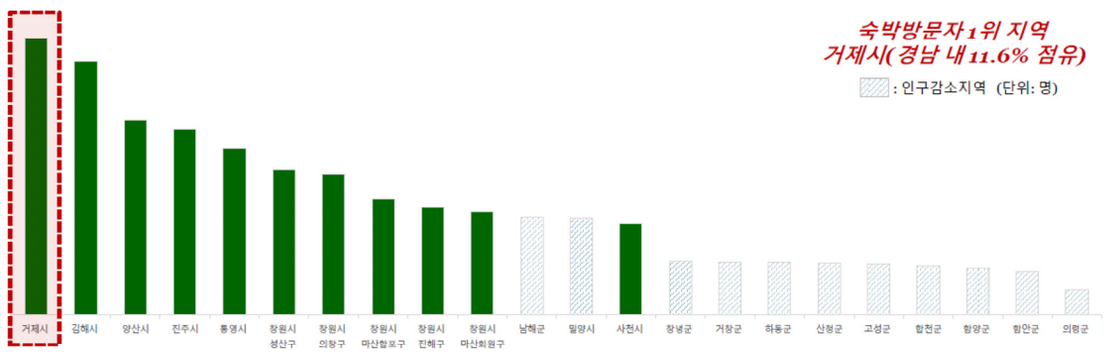
지역	김해시	창원시 의창구	양산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거제시	진주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사천시
방문자	38,807,101	32,184,362	31,297,115	29,489,663	24,727,365	21,598,472	20,457,349	19,396,562	17,254,722	15,409,333	14,601,557
지역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의령군
방문자	14,207,998	10,024,424	9,021,974	8,915,214	8,187,481	7,036,691	6,799,554	6,511,737	6,166,430	5,012,357	4,051,530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7

경남 숙박 방문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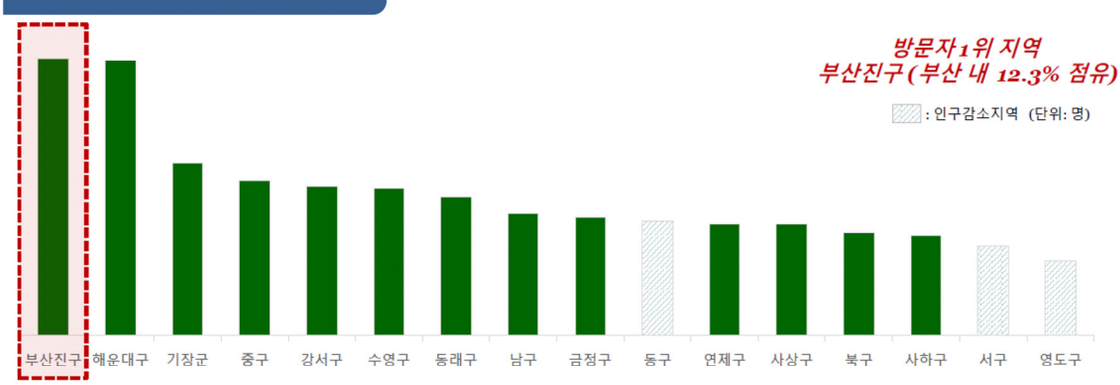
지역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남해군
방문자	6,277,563	5,744,701	4,403,136	4,187,269	3,768,253	3,281,055	3,198,542	2,611,201	2,428,507	2,316,740	2,209,274
지역	밀양시	사천시	창녕군	거창군	하동군	산청군	고성군	합천군	함양군	함안군	의령군
방문자	2,188,291	2,065,004	1,219,405	1,198,995	1,196,608	1,170,085	1,155,828	1,116,598	1,055,475	979,378	560,034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18

부산 방문자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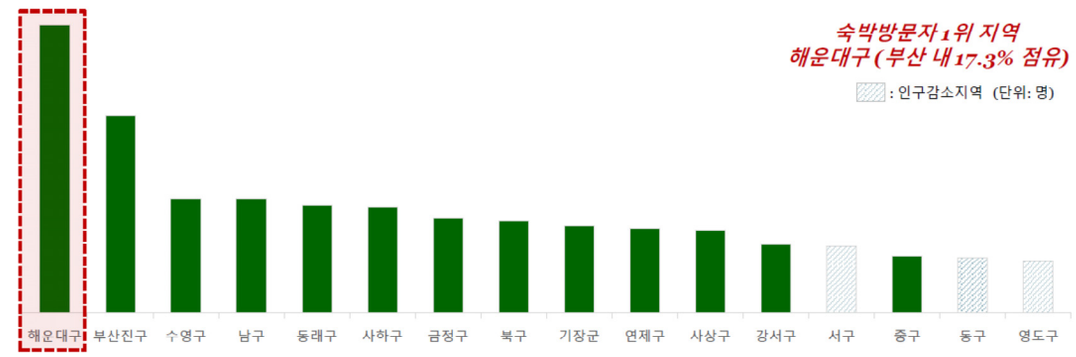


지역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중구	강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방문자	60,811,408	60,282,753	37,835,404	34,006,523	32,695,696	32,320,401	30,338,522	26,700,538
지역	금정구	동구	연제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방문자	25,896,628	24,951,193	24,358,256	24,355,161	22,368,333	21,829,906	19,533,221	16,468,407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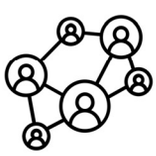
부산 숙박 방문자 현황



지역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북구
방문자	9,443,164	6,430,651	3,735,408	3,732,402	3,514,840	3,453,176	3,102,679	3,006,339
지역	기장군	연제구	사상구	강서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방문자	2,856,022	2,774,922	2,699,829	2,257,458	2,199,910	1,862,681	1,809,141	1,679,540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연구 조사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협의체 구성

-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 참여주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 문체부, 행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지방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등
- 1차 회의: 2023년 9월 12일
- 논의사항: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사례 공유, 각 사업 간 연계 방안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3.9.13), '관광 생활인구 확대'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되찾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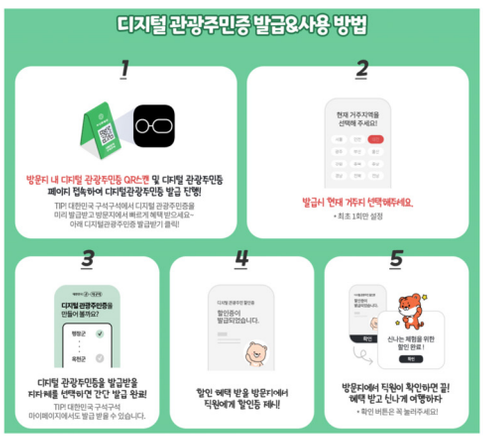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21

디지털 관광주민증

•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방문자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을 강원도 평창과 충청북도 옥천에서 2022년 10월부터 시작

–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 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



자료: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2.9.26), 인구감소 지역을 관광활성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자료: https://korean.visitkorea.or.kr/digtCard/digt_card_intro.d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22

자료: https://korean.visitkorea.or.kr/digtCard/digt_card_intro.d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디지털 관광주민증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 결과,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58,000여 명에 달함

– 발급자 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할인 혜택을 받은 건수는 발급자의 22%인 12,870건임

• 2023년에는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경북 고령, 경남 거창 등 총 9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

자료: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3.5.31),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나도 지역주민! 인구감소지역 명예 주민도 되고 할인 혜택도 받자!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자체 홍보 사례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9136400052

자료: http://tour.goryeong.go.kr/kor/page.html?mc=019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체류관광을 통한 지역 방문 및 생활인구를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부터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13선'을 선정하여 운영함
  - 살아보기 생활관광이란 최소 3일 이상을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된 것처럼 그 지역의 생활양식을 체험해 보는 체류형 여행상품

자료: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3.5.3), 로컬여행 더 깊이 더 새롭게 즐기는 방법 '생활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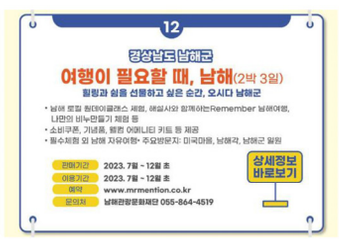
자료: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22985&code=61172311&cp=n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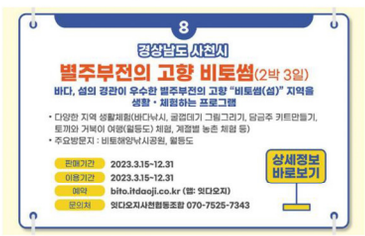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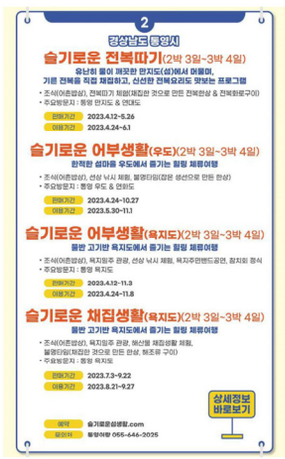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25

2023년 생활관광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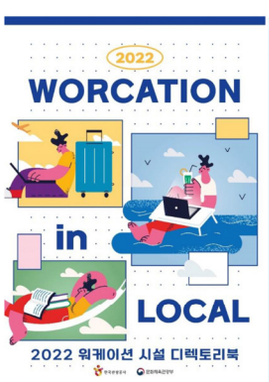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자료: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280399a9-780f-4e1b-b56b-ced6d62e2cee&temp=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26

워케이션 지원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장소 및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와 달리
워케이션은 일과 관광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이자 관광트렌드입니다.

일 (Work) → 업무환경 변화 통한 업무효율성 및 창의성 극대화 → 워케이션 (Workation) ← 업무 이외 시간을 활용한 여가 및 관광활동 향유 ← 휴가 (Vacation)

휴가지 및 지역 내 업무공간 연계

휴식, 체험 등 지역의 다양한 즐길거리 연계

2023년 워케이션 시범사업

참가대상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및 1인 사업자(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지원내용	오피스 및 숙소 등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운영기간	2023.8.28(월) ~ 11.30(목) (선착순 마감)
운영지역	부산, 인천, 남해, 양양 등 16개 지역 20개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02-462-3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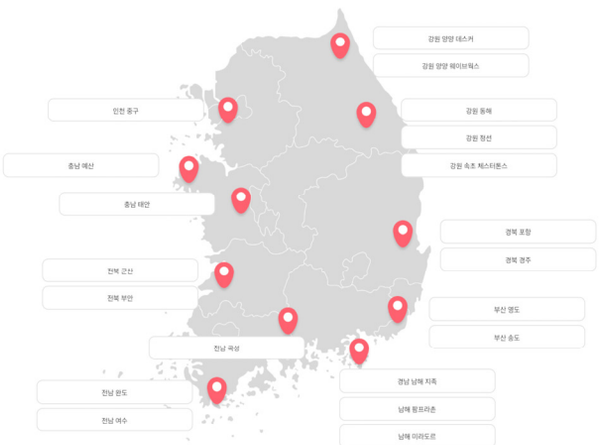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자료: https://datalab.visitkorea.or.kr/site/portal/ex/bbs/View.do?cblIdx=1129&bcIdx=302197(좌)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98dc48b9-6be6-4bed-857f-bccf6fe585f3&con_type=10000(중)
https://korean.visitkorea.or.kr/other/otherService.do?otdid=1ad1f833-2d01-11ee-95cd-0050569dc2b9(우)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2023 워케이션 시범사업

순번	지역	프로그램명	협업기관	기간	협업기관 지원금 (박 기준)	문체부 지원금 (인 기준)	기업은행 지원금 (인 기준)	1인 부담금
9	경남	상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남해군청	3박 4일	50,000원	50,000원	160,000원	50,000~100,000원
10	경남	창선 워케이션 프로그램	남해군청	3박 4일	50,000원	50,000원	160,000원	50,000~100,000원
11	경남	지족어촌체험 휴양마을워케이션 프로그램	한국어촌어항공단	3박 4일	70,000원	50,000원	160,000원	50,000원
12	부산	영도 워케이션 프로그램	부산시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박 4일	0	50,000원	160,000원	120,000원~150,000원 (아델라호텔) 270,000~575,000원 (라발스호텔)
13	부산	송도 워케이션 프로그램	부산시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박 4일	0	50,000원	160,000원	140,000원~300,000원 (그랜드조선호텔)
14	경북	경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경상북도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박 이상 6박 이하	70,000원~100,000원	50,000원	160,000원	50,000원
15	경북	포항 창바우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	한국어촌어항공단	3박 4일	70,000원	50,000원	160,000원	50,000원



자료: https://thehyuil.co.kr/mcstIntro

자료: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adbc19df-6d47-4dd0-aaac-61f0f8a94b07&con_type=10000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워케이션 지자체 추진 사례

운영 프로그램 소개

경북 워케이션

참여자격 | 기업 재직자 혹은 4대보험 가입된 프리랜서 등 **운영시군** | 포항, 경주, 문경, 의성
참여일정 | 최소 2박 3일부터 최대 6박 7일까지
참여혜택 | 숙박할인, 공유오피스 제공, 웰컴키트 증정 (소진시 종료)
필요사항 | 신청서류 제출 및 여행자보험 가입 동의

경북 패밀리베케이션

참여자격 | 가족 단위의 일반 관광객 **운영시군** | 울진, 영주, 성주, 김천, 상주, 봉화, 포항, 안동, 경주, 영양, 칠곡, 영천
참여일정 | 최소 1박 2일부터
참여혜택 | 할인금액 적용된 상품 제공
필요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동의

자료: https://tour.gb.go.kr/guide/noticeView.do?page=1&search=&idx=194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29

해외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

- 한국관광공사와 부산광역시가 일본인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3년 9월에 일본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부산 워케이션 모니터투어 실시
  - 참가자들은 2박3일 일정으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방문, 참가자 개별 워케이션 체험, 한국 기업 HR 담당자와의 간담회 참석 등
- 2023년 11월에는 부산에서 한일 양국의 워케이션 전문가를 초빙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비일상적인 워케이션 장소, 부산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3.9.7), 일본 워케이션 관광객이 부산으로 온다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30

일본 제2의 고향 만들기

- 중장기 체재자 또는 반복·계속적인 방문자 등 새로운 교류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관심분야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정착시키기 위하여 관광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 2022년에 19개 지역을 모델실증지역으로 선정, 숙박시설이나 거리의 체재환경 정비, 교통수단 정비, 마케팅 등 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

일본 워케이션

- 2020년 일본 정부는 "워케이션은 새로운 여행 및 일하는 방식으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일본 관광청은 워케이션 관련 사업으로 「새로운 여행 스타일」 기업과 지역에 의한 모델사업을 2021년부터 실시
  - 보내는 쪽(기업)과 받아들이는 쪽(지역)을 대상으로 매칭을 실시하고, 효과 검증이나 제도 도입, 유입체제 정비 등을 진행

자료: 일본 관광청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역관광 정책 추진사례

31

일본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2023-2025)

한국 Korea C

자료: 일본 관광청 자료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2

생활인구(관계인구)로서 관광객의 역할

- 생활인구(관계인구)로서 관광객은 지역의 인구감소로 발생하게 되는 지역경제의 침체, 산업의 위축, 일자리 부족 등의 지역문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급격한 붕괴를 방지하는 완충적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에 우선 주목할 필요
- 지역 인구유입의 저변확대 방안으로서 생활인구(관계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관광객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일본 관광청의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는 크게 4단계를 거쳐 관광객이 관계인구 나아가 다지역 거주자나 두지역 거주자로 서서히 이행한다는 가설을 제시

: ① 지역을 인지하기 → ② 지역을 방문하기 → ③ 반복해서 방문하기 → ④ 지역에 뿌리내리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3

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규모 추정

분석 목적	분석 자료	분석 방법
•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가 유발할 수 있는 지역 소비 축소 규모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객 규모 산출	• (정주인구 소비액) 민간 빅데이터(신용카드 자료)를 이용 • (관광객 소비액)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이용	• 정주인구 및 관광객 소비액을 이용하여 관광객 1인이 유입될 시, 정주인구 감소로 인한 연간 소비 감소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를 비교

자료: 강지수·최경은(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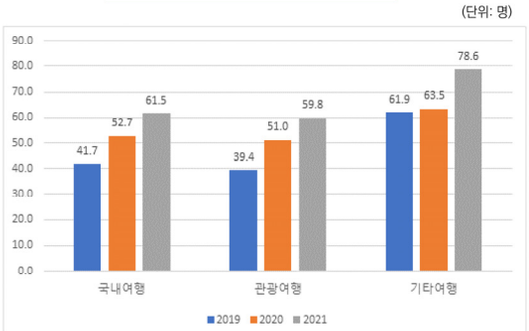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4

관광객 1인이 유입됨에 따른 정주인구 소비 대체효과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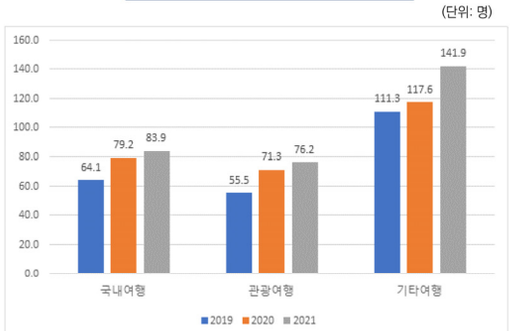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단위: 명)



비인구감소지역

(단위: 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주인구 1인 대체를 위해 필요한 관광객 수〉

자료: 강지수·최경은(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5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유입이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분석 자료

- 국민여행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각각 시군-연도 단위로 구축하여 사용
- 고용 및 생산 분석 모두 가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분석 방법

- 시군 단위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입이 종속변수(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를 통해 관광 수입 증가가 실제로 생산 및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현된 효과를 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자료: 강지수·최경은(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6

관광객 유입은 인구감소지역 고용 및 생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여행 지출액 증대의 지역 고용 및 생산 효과

- 관광 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는 효과
- 관광 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산(GRDP)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
- 한편 관광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고용 및 생산 효과의 격차 존재

-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 유입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시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자료: 강지수·최경은(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7

관광수요 측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수요 창출 및 확대

생활(관계)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활력 제고

방문 소비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의 숙박여행 인구 유입을 위해 체류형 관광 수요 지속 확대
- 체류형 관광수요에 더하여 재방문 관광수요 창출 및 확대
- 코로나19 이후 라이프스타일 및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여행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 수요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8

관광공급 측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공급 기반 확충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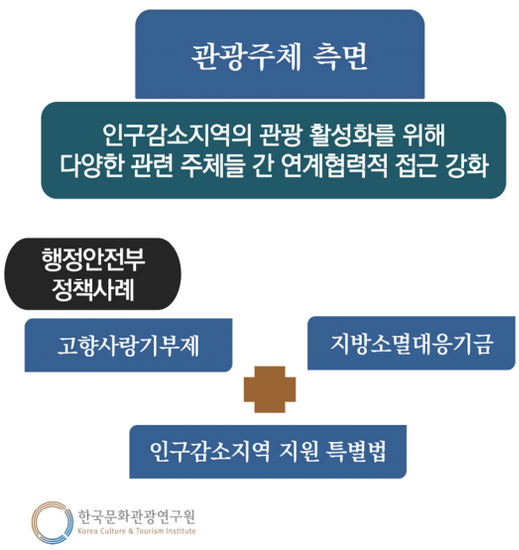
지역인구 유출 방지 및 타지역 인구 유입 확대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력 및 관광인프라(숙박, 안내, 교통 등) 부족 문제 개선
- (관광인력)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른 관광분야 비즈니스 및 일자리 확충(특히 청년 인력의 유출 방지 및 유입 도모), 관광산업에서 고령인구 활용 강화
- (관광숙박) 빈집, 노후·유휴시설이나 유휴공간을 정비 및 효율적 활용
- (관광안내 및 교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안내/교통 서비스 제공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39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
-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 인구감소지역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소권역 연계협력형 시범사업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시장을 관광과 적극적으로 연계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감사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주제 발표 2

빅데이터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분석: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이원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2023.10.25.)

빅데이터로 살펴본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분석: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이원도

wondo.lee@krila.re.kr

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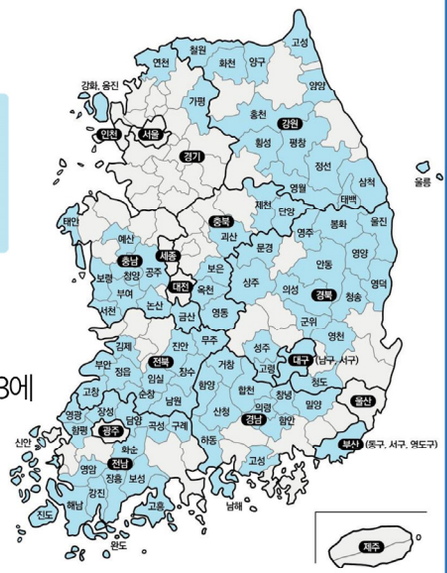
2 지방소멸 정의와 유사개념 정리

3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탐색적 분석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대응전략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인구감소지수 지표(8개)에 근거,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대상, 관심지역 18개소)을 지정

❑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효과적인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수립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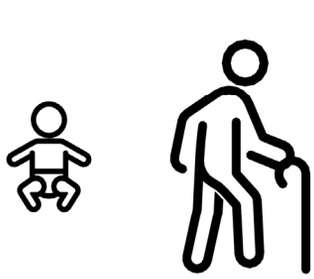
01/26

지역 인구감소 위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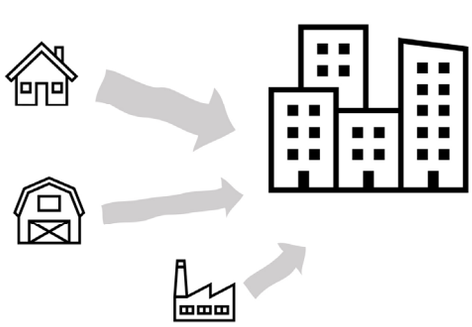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구문제가 도래

❑ 자연적 요인(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및 사회적 요인(인구이동)에 의한 인구변화

❑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및 지역별 전략**의 필요성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 인구위기 완화



인구분포 불균형에 따른 (지역)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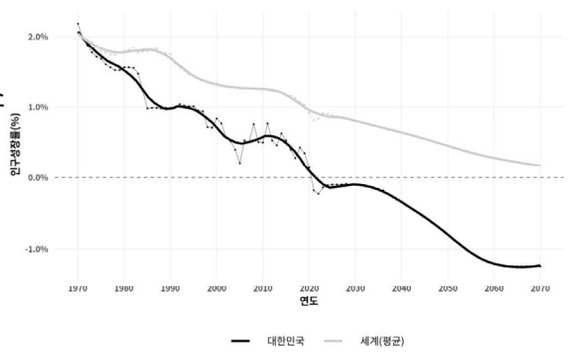
02/26

(이례적인)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

인구규모 감소

❑ 저출산 심화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

❑ 초고령사회 진입



통계청(2021)와 UN(2022)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인구분포의 불균형

❑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심화 (지방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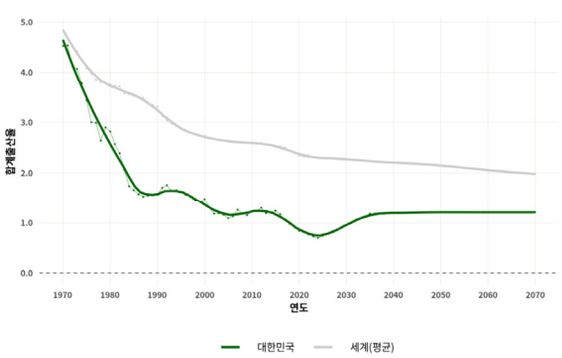
03/26

3대 인구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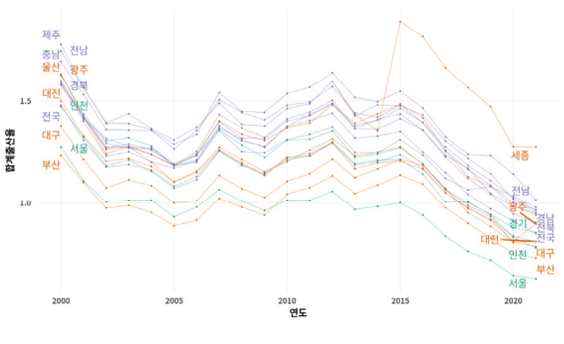
#1 저출산

❑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 사망자 수 > 출생자 수

❑ 모든 시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 하지만 대도시 지역의 감소가 더 뚜렷함



통계청(2021)와 UN(2022)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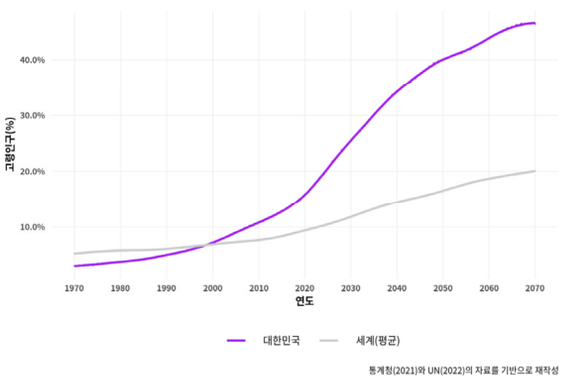
통계청(`21년 12월에 공표 장래인구추계) 자료 재구성

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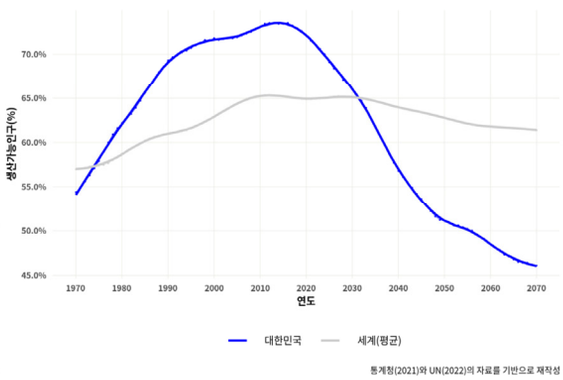
3대 인구리스크

#2 고령화

❑ `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



통계청(2021)와 UN(2022)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통계청(2021)와 UN(2022)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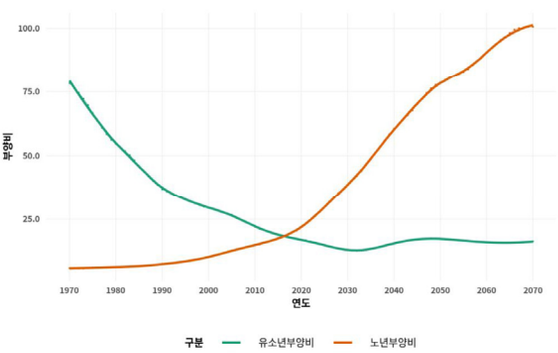
05/26

3대 인구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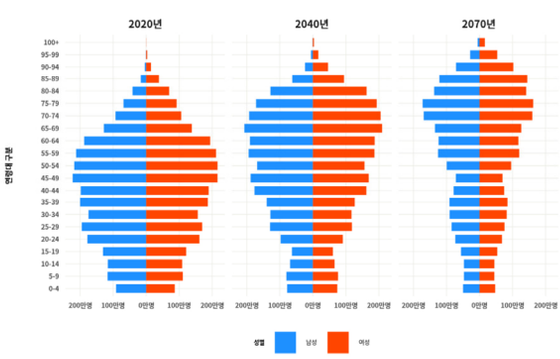
#2 고령화

❑ 노년(65세 이상)부양비 증가와 유소년(0-14세)부양비 감소

❑ 역삼각형 구조의 인구 피라미드로 전환 중



통계청(`21년 12월에 공표 장래인구추계) 자료 재구성



통계청(`21년 12월에 공표 장래인구추계) 자료 재구성

0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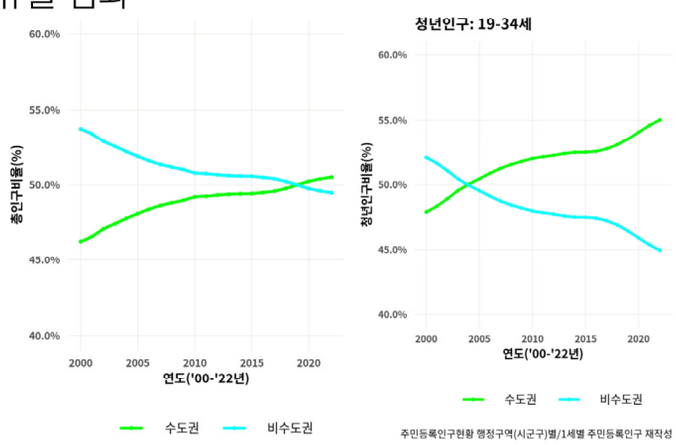
3대 인구리스크

#3 지방소멸*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역전

❑ 비수도권의 청년층 인구유출 심화

*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김현호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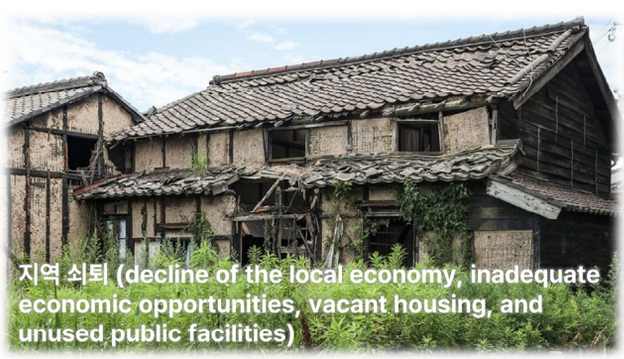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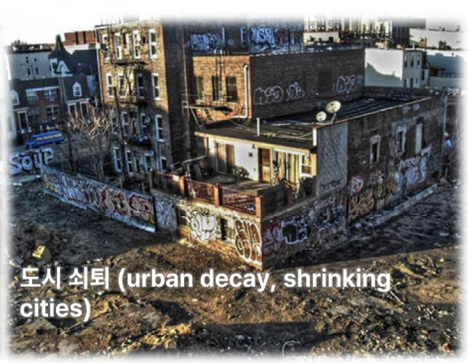
07/2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위기



지역 쇠퇴 (decline of the local economy, inadequate economic opportunities, vacant housing, and unused public facilities)



도시 쇠퇴 (urban decay, shrinking cities)

❑ 지역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인구의 안정성(stability)에 악영향을 미쳐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그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문제점은 상이하게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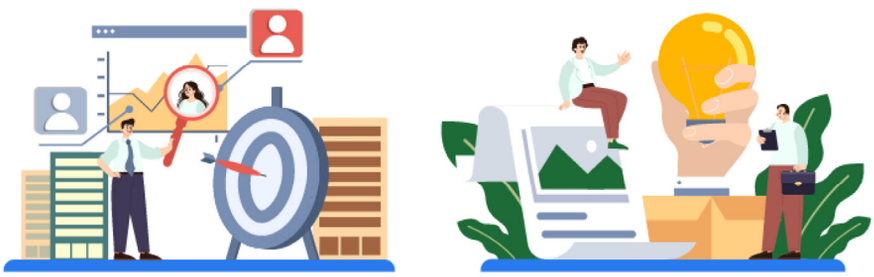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인구감소문제는 **지방의 인구감소(underpopulation)**가 **수도권의 인구과잉(overpopulation)**으로 이어져 **인구 양극화 및 고착화** 현상이 심화

❑ 지역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인구학적 쇠퇴단계에 도달하면 빈집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지방소멸의 최종단계**인 한계취락지(marginal settlements)로 전락할 수 있음

08/2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 인구감소대응 필요



대도시 ····· 중소도시

- ❑ `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50.1%)가 비수도권 인구역전, 비수도권 20~30대 청년인구 유출 심화**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 격차와 인구 불균형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가속화**
- ❑ 이러한 인구 불균형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 심화와 함께 경쟁력이 떨어진 비수도권 지역(예: 농어촌 및 중소도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하므로, 인구감소 위기 및 지역별 **인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

09/26

2. 지방소멸 정의와 유사개념 정리

축소도시와 지방소멸 문제의 비교

단/장기적으로 심각한 인구감소로 발생

축소도시(shrinking cities)

- ❑ 탈산업화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되거나, 교외화로 인해 도심에서 인구와 자원이 도심지 외곽으로 유출된 도시지역에서 주로 관측

지방소멸 (shrinking regions*)

- ❑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국가에서)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심화로 인해 쇠퇴가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지역 역량이 감소하여 지역 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현상

* 관련 용어는 shrinking communities, marginal settlements in rural communities, regional abandonment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음

10/26

축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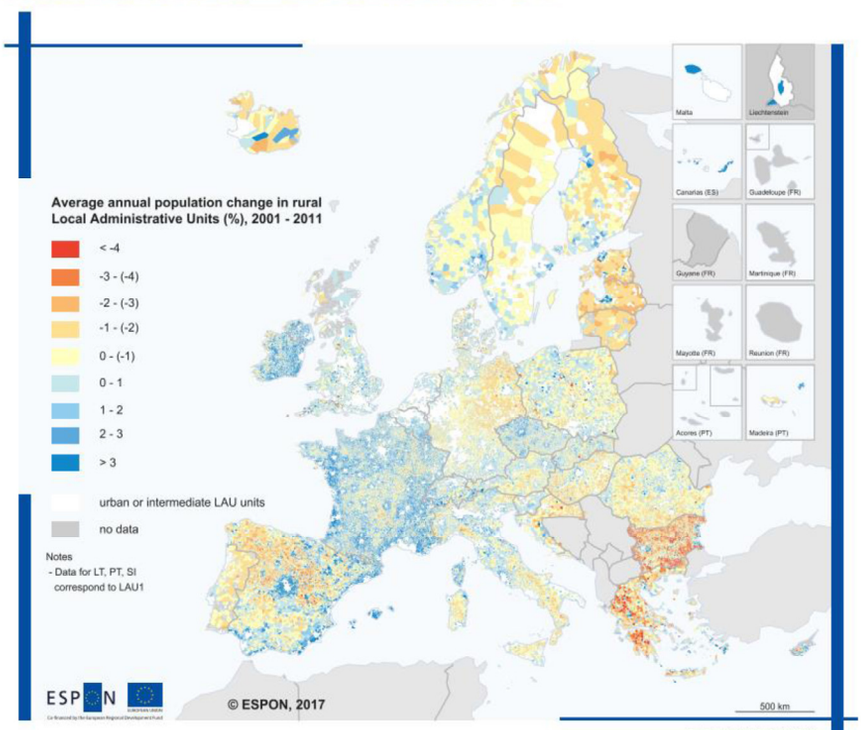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 + 물리적 (도시)환경의 공급과잉

- ❑ 성장시대의 개발수요에 맞추어 건설된 주택, 기반시설 등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공급 과잉 상태로 인한 도시재생의 어려움
- ❑ 도시 축소현상의 주요 원인 (구형수 외 2016): 경제여건 변화(세계화, **탈산업화**) + 인구학적 변화(**저출산, 고령화**) + 공간구조 변화 (**교외화**) + 체제 전환 (탈산회주의) + 환경적 위기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 ❑ 최근 유럽지역에선 이러한 축소도시 현상이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농어촌 및 기타 중소도시)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

무리한 도시확장에서 압축도시로 전환, 적정화 규모 전략이 요구됨

11/26

Map 1
Population change in predominantly rural regions, 2001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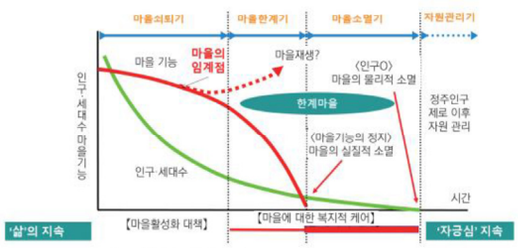
Source: ESPON. (2017). Shrinking Rural Regions in Europe

12/26

지방소멸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절벽 및 지역 지속가능성 문제

- ❑ 일본의 지방소멸 담론(discourses of the vanishing)에서 등장한 '지방소멸'
- ❑ 대도시권(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이로 인해 지방의 **인구 불균형 문제 심화**가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 **지역의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
- ❑ 일본과 대한민국은 농어촌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가 모두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임



자료: 최미숙 외 (2021).

지역의 고유한 역량 제고 및 회복을 통한 상향평준화(levelling up)과 격차 해소가 필요

13/26

3.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탐색적 분석

지역활력의 사전적 정의

사전적 의미로서 활력: 생명체가 지닌 에너지, 역동성,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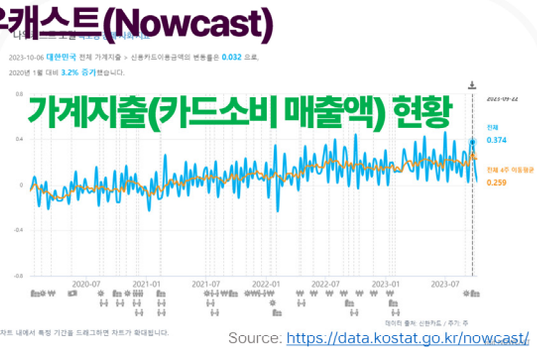
- ❑ 모든 공간이 다른 지역보다 (거주 및 생활)인구가 집중된 도시가 될 수 없음
- ❑ 지역은 각기 다른 역량(capacity)와 특성을 지닌 고유한 장소로서 의미를 지님

규모(scale) | **다양성(diversity)** | **파형(waveforms)**

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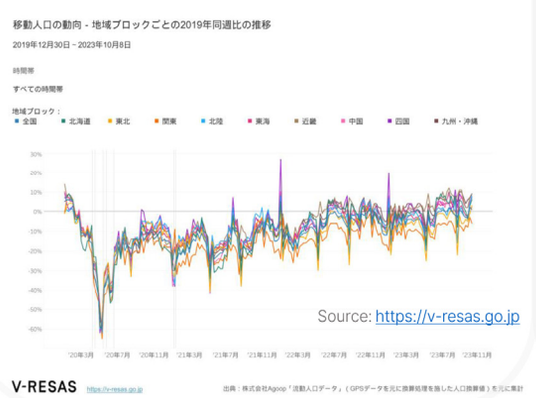
대한민국 통계청 나우캐스트(Nowcast)

Source: https://data.kostat.go.kr/now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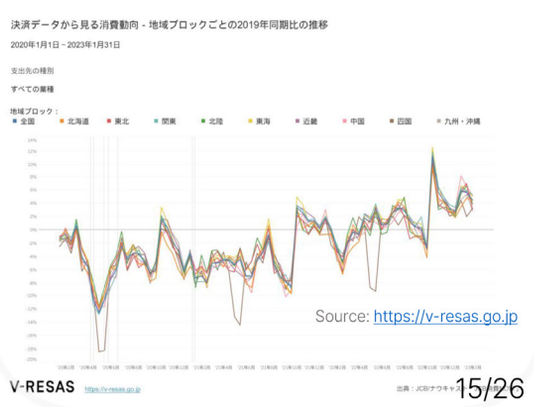


Source: https://data.kostat.go.kr/nowcast/

일본 지역경제사회 분석시스템 (RESAS), 지역경제 현황 (Vital signs of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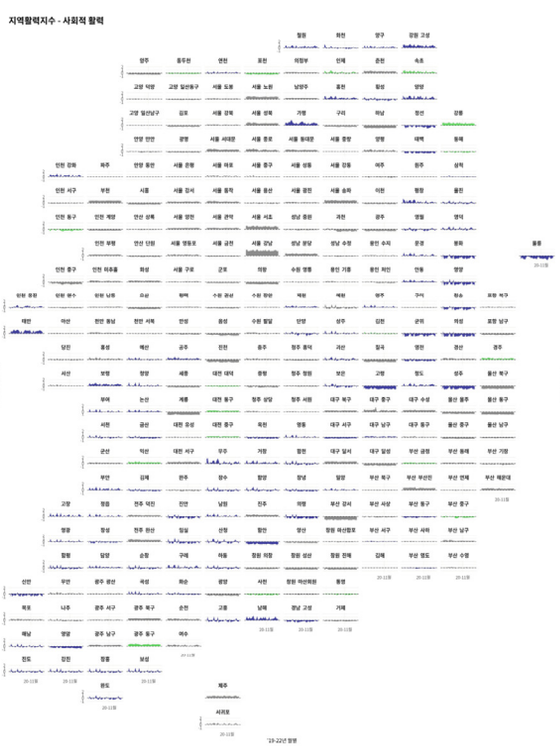
Source: https://v-resas.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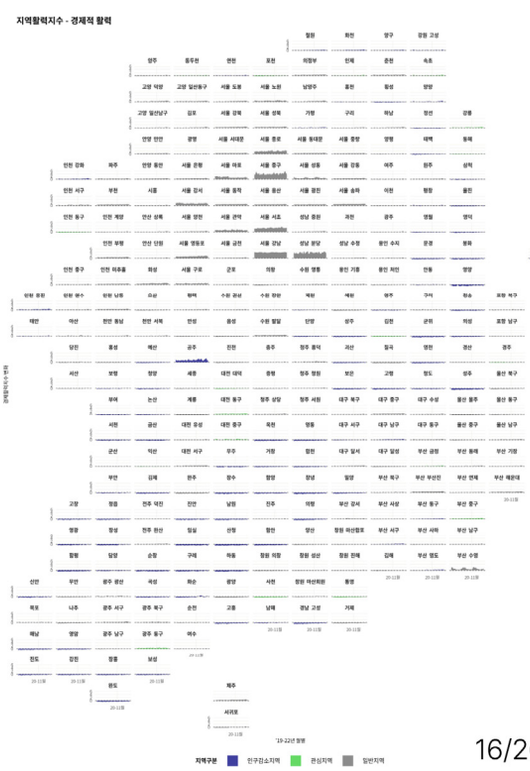


Source: https://v-resas.go.jp

15/26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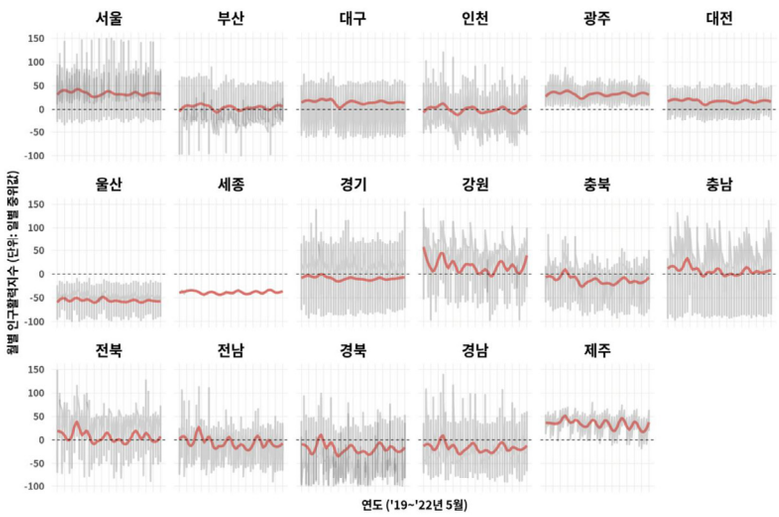




자료: 이원도 외 (2023).

16/26

일일 광역시도별 사회적 활력 (인구) 동태적 변화



❑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내부 지역간 격차(회색 막대)가 크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은 타지역보다 유동인구 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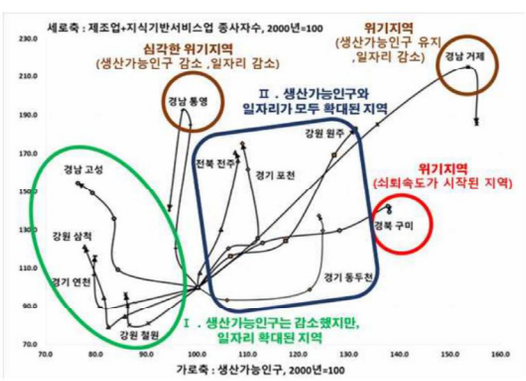
17/26

3.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탐색적 분석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특성분석

❑ 인구감소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감소로 생산성이 감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산업구조개편과 미래신산업 창출**이(예: 부산금융특구, 대구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경남형 기회발전특구 등) 필요하며, 단기적인 지역 성장동력으로 **체류인구(방문자) 확대가 필요**



자료: 정성훈(2019b: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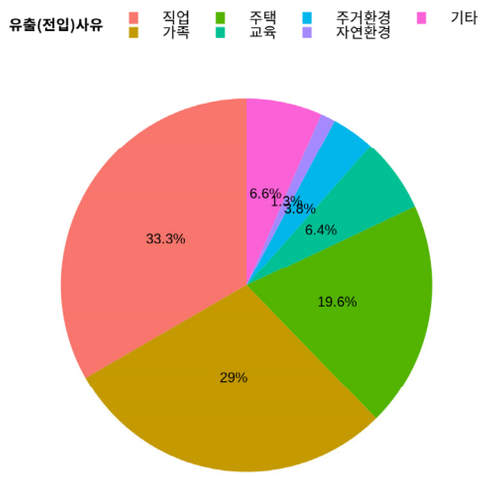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데이터(또는 향후 행안부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방문자(visitor) 특성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 지역편익 파악이 가능**

* 2022년 12월 시범지역(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구) 실험통계 공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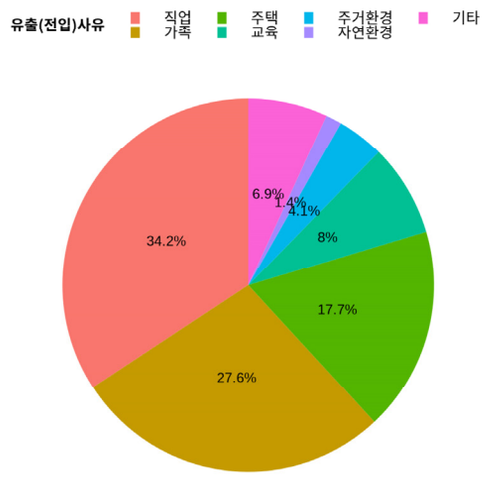
18/26

#1 인구감소지역은 일자리와 가족, 주택으로 인구가 유출

❑ 지역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 : `20년 대비 `22년의 전출인구 규모는 약 42만 명에서 약 34만 명으로 감소, 교육(약 1.6%)과 직업(약 0.9%)의 전출사유 분포가 증가



인구감소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유출인구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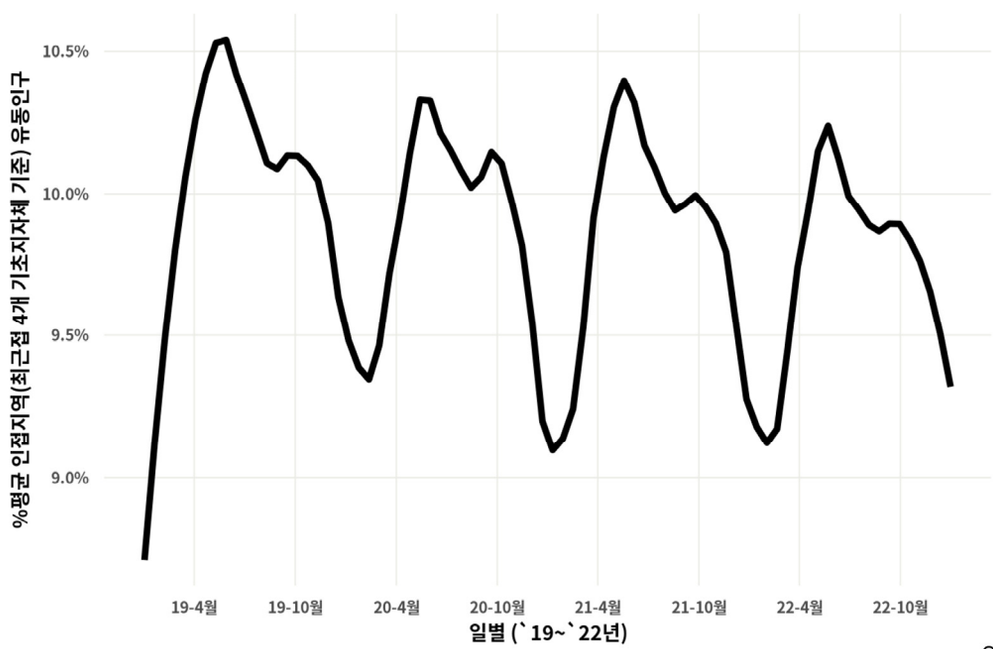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유출인구 (2022년)

19/26

#2 인구감소지역과 인접 지자체 간의 상호연계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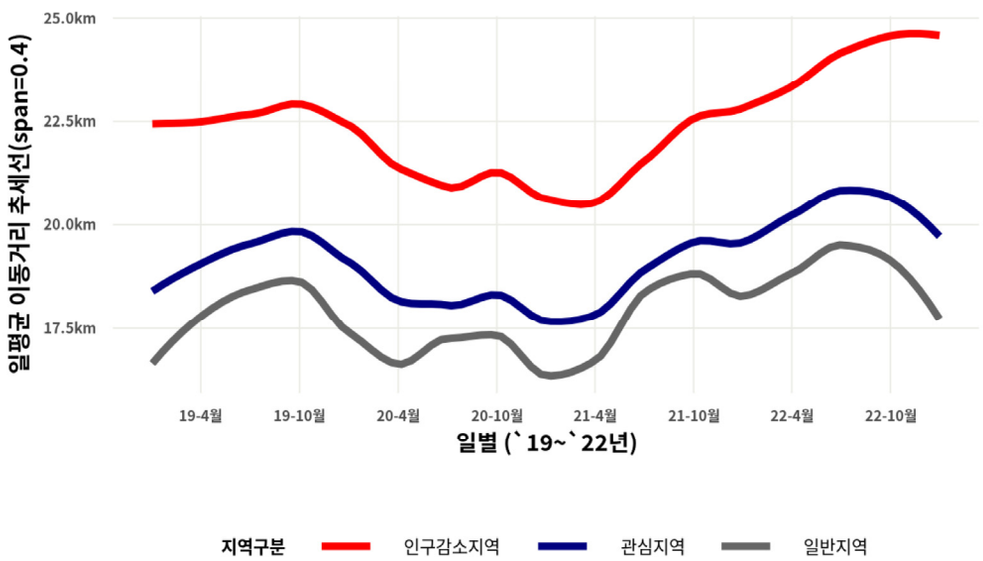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에서 인접지역으로 일상생활의 활동(예: 통근·통학)을 위해 이동하는 인구는 평균 약 10% 내외



20/26

#3 인구감소지역 거주민은 일상생활 수행위해 더 멀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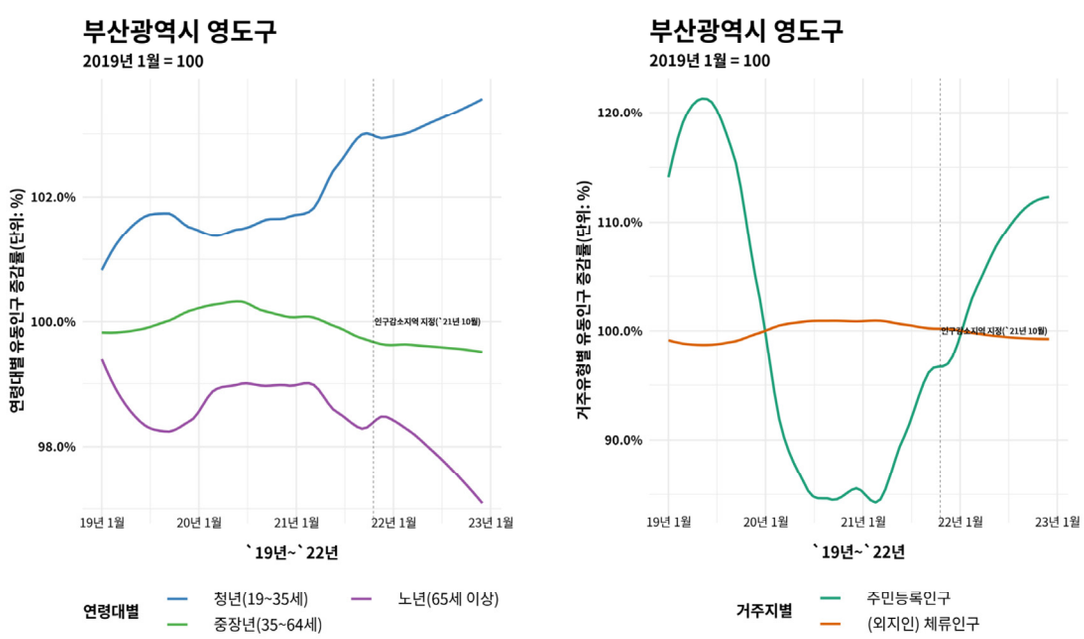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거주민들은 관심지역(약 19.2km) 및 일반지역(약 18km)보다 더 긴 거리(약 22.4km)를 하루 동안에 이동하여 일상생활을 영위



SKT기반자료, 시군구 중심점 기준

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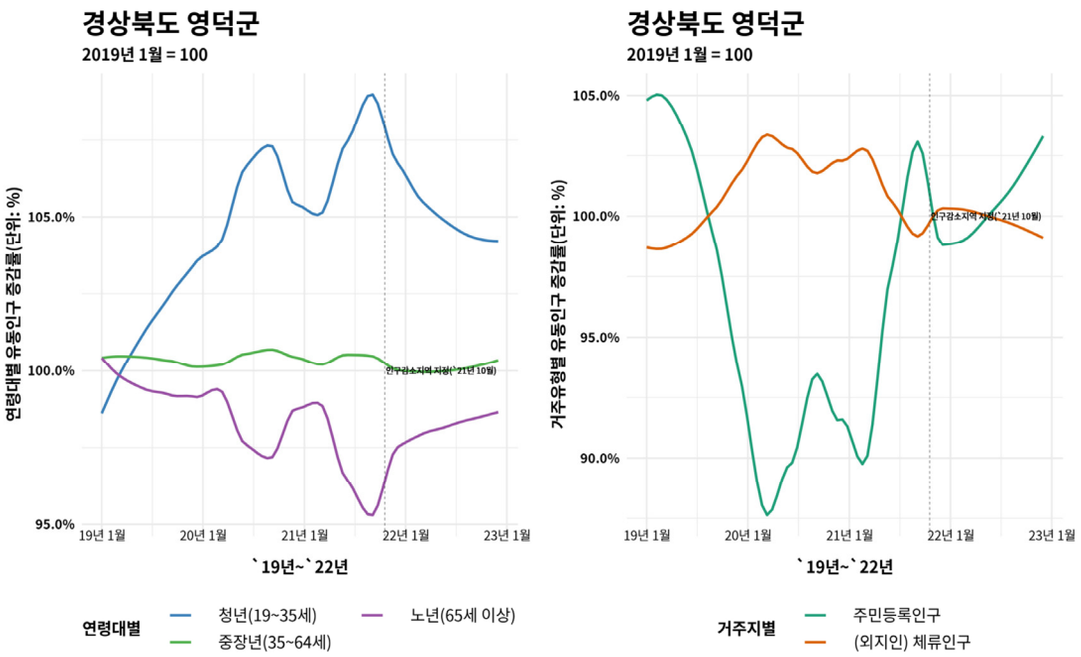
대경·동남권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변화 #1



❑ 청년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류인구의 증가는 더딘추세

2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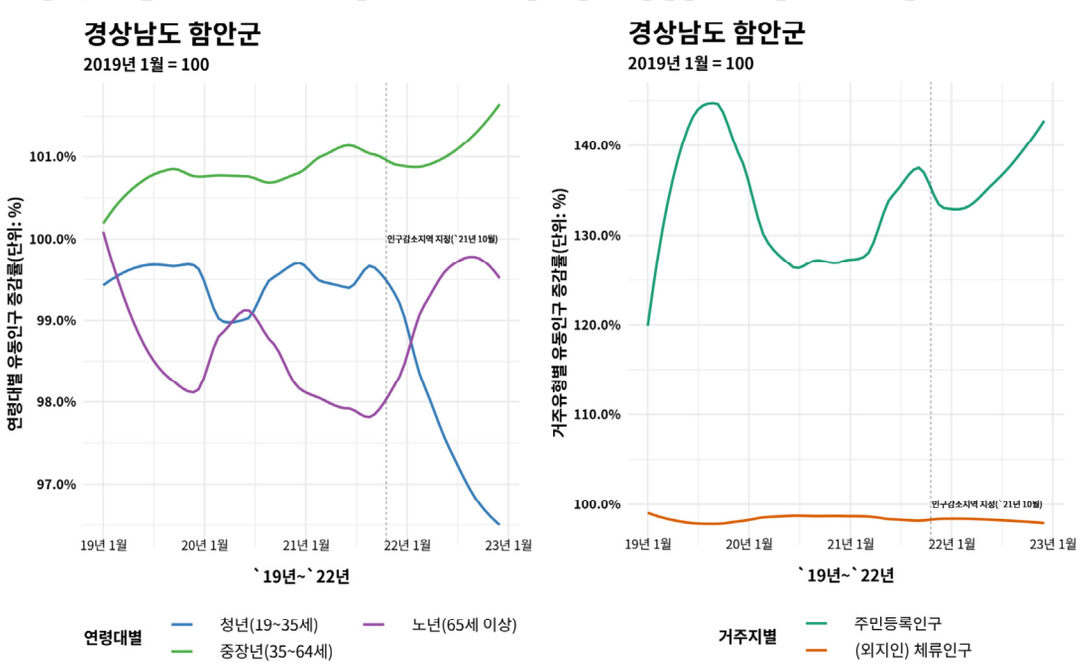
대경·동남권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변화 #2



❑ 청년인구와 체류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3/26

대경·동남권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변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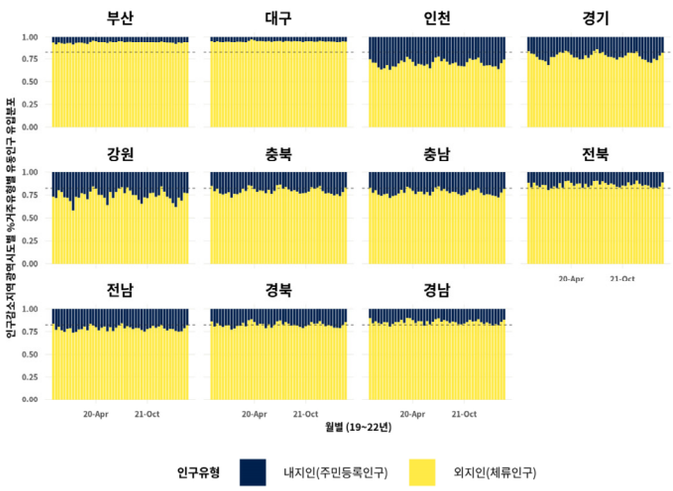


❑ 청년인구와 체류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4/26

4.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분석결과 정리



- ❑ **인구감소지역**은 공통적으로 **체류인구의 비중**(82.2%)이 전국평균(87.7%) 보다 **낮음**
- ❑ 광역시도별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는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부산, 대구와 같은 광역시는 **체류인구의 확대(+청년인구 유입)를 통한 인구활력 제고가 필요**

25/26

4.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

방문자 경제 (visitor economy)

- ❑ 경제, 산업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
- ❑ 관광사업을 포함하여 특색 있는 방문지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

방문자 경제 활성화 전략

- ❑ 민간부문 주도 관광지 개발
- ❑ 지자체 주도 인프라 개선 및 규제완화
- ❑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 지방분권
- ❑ 브랜딩(Branding)
- ❑ 민관협력체계 구축

Source: 오시리아 관광단지 (https://osiria.bmc.busan.kr/)

26/26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주제 발표 3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김병국 교수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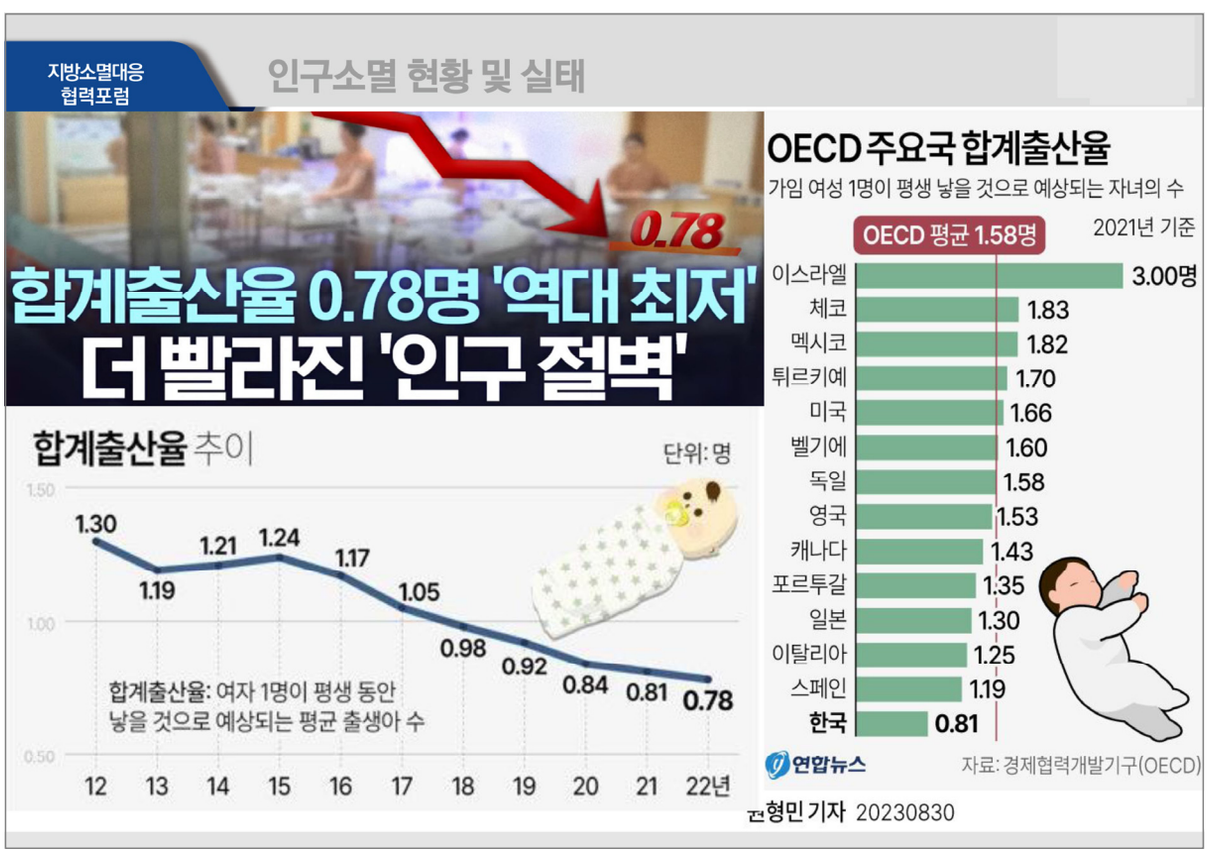
2023.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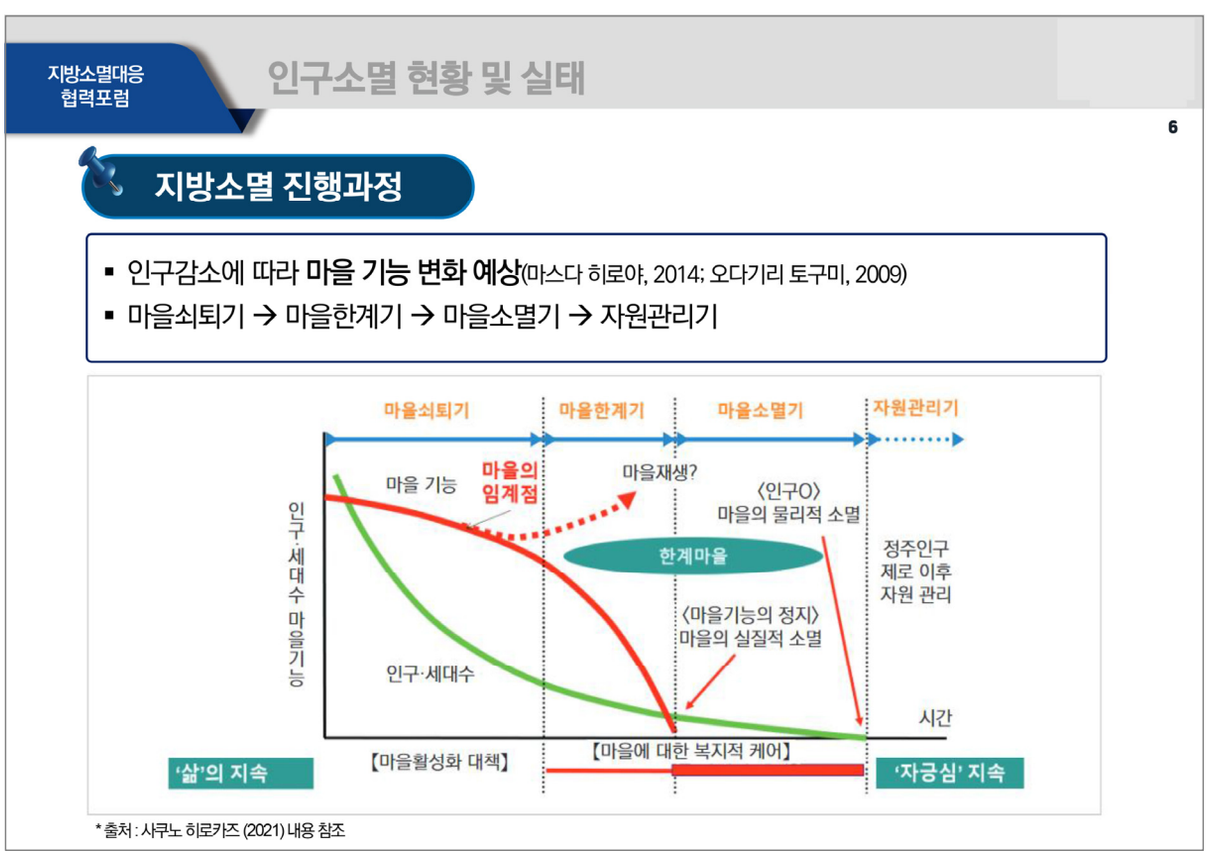
김 병 국
(대구대학교 교수)

목차 Contents

Ⅰ 인구소멸 현황 및 실태
Ⅱ 경북관광 현황/분석
Ⅲ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Ⅰ. 인구소멸 현황 및 실태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인구소멸 현황 및 실태
0.78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더 빨라진 '인구 절벽'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1.50
1.00
0.50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년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OECD 평균 1.58명
2021년 기준
이스라엘 3.00명
체코 1.83
멕시코 1.82
튀르키예 1.70
미국 1.66
벨기에 1.60
독일 1.58
영국 1.53
캐나다 1.43
포르투갈 1.35
일본 1.30
이탈리아 1.25
스페인 1.19
한국 0.81
연합뉴스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형민 기자 20230830



* 출처 : 사쿠노 히로카즈 (2021)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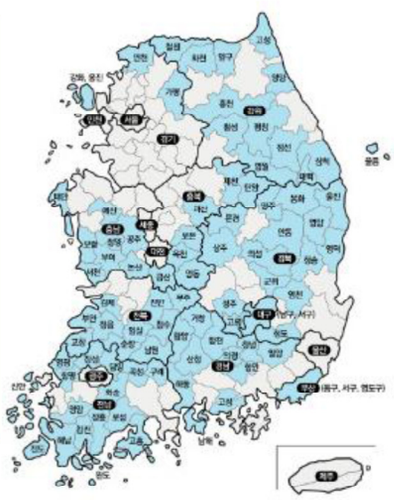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인구소멸 현황 및 실태

7

인구소멸 현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 **경북 및 전남지역** 16곳으로 최다 지정
- 강원 12곳, 경남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인구소멸 현황 및 실태

8

인구소멸에 따른 정책

- 지방소멸 위기 대응정책으로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지역사업들을 추진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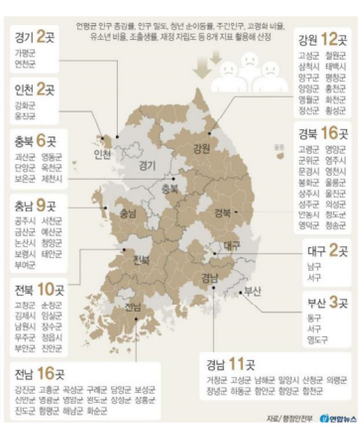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정책사례

고향사랑기부제 (2023.1.1.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개)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출처 : 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한 관광의 역할과 과제(2023, 한국지역개발학회)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인구소멸 현황 및 실태

9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가 제공하는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
- 이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강화와 더불어 거주지역 외 관심지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관계인구**가 조성되는 효과 기대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인구소멸 현황 및 실태

10

중앙정부 정책사업

교육

- 함양 작은학교 살리기
- 곡성 농촌유학
- 지자체·지역대학 협력
- 기초지자체·전문대학 협력
- 논산 KT&G 상상마당

의료/건강

- 안산 마을주치의 사업
- 홍성 마을주치의 사업

일자리

- 의성 스마트팜 창농지원
- 홍성 젊은협업농장
- 문경 리플레이스&화수헌
- 목포 괜찮아마을
- 괴산 자연드림파크
- 넥스트로컬 제주
- 서천 삶기술 학교

체류/정주/복합

-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의성 한달살기
- 문경 달빛탐사대
- 곡성 청춘작당
- 보성 천연염색공예관
- 빈집활용 한달살기 빈집활용 플랫폼
- 공주 청년마을 만들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Ⅱ. 경북관광 현황/분석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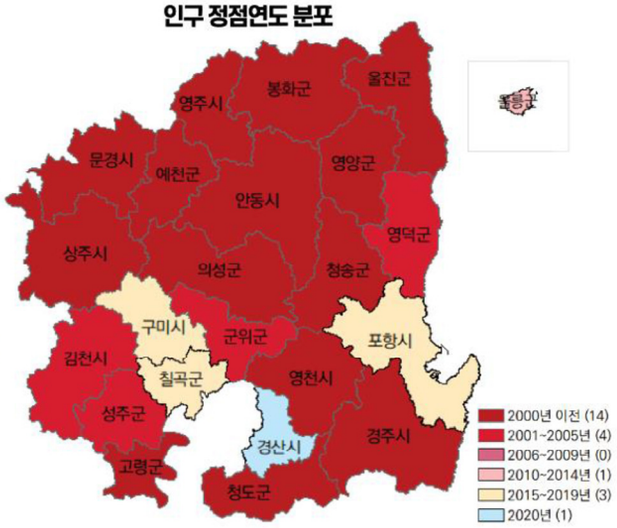
경북 인구소멸 현황

▪ 경북 시·군별 인구 정점은 2000년 이전 집중된 후 감소 추세

〈시·군 인구 정점과 인구 저점연도〉

연도	인구정점연도	인구저점연도
2000년 이전	14개(61%)	3개(13%)
2001~2005년	4개(18%)	-
2006~2009년	-	-
2010~2014년	1개(4%)	1개(4%)
2015~2019년	3개(13%)	2개(9%)
2020년	1개(4%)	17개(74%)
총계	23개(100%)	23개(100%)

인구 정점연도 분포



* 출처 : 경북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1)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13

경북 인구소멸 현황

전국 소멸위험지수

경상북도 지방소멸위험지수

시군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	2023..	2024..	2025..	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경산시	1.130	1.300	1.301	1.085	0.854	0.6	0.495	0.428	0.381	328	0.306	0.295	0.295	0.296	0.310	0.312	0.312	0.301	0.297	0.284	0.270
경주시	0.510	0.490	0.466	0.422	0.364	0.3	0.280	0.248	0.214	190	0.179	0.174	0.171	0.173	0.177	0.178	0.176	0.170	0.167	0.162	0.153
고령군	0.222	0.201	0.188	0.183	0.182	0.1	0.174	0.154	0.134	121	0.114	0.107	0.109	0.109	0.110	0.109	0.114	0.110	0.106	0.104	0.099
구미시	1.221	1.052	0.918	0.845	0.753	0.6	0.627	0.545	0.454	389	0.358	0.344	0.332	0.332	0.341	0.345	0.337	0.325	0.318	0.305	0.289
군위군	0.137	0.128	0.104	0.107	0.117	0.1	0.106	0.091	0.083	077	0.074	0.070	0.073	0.070	0.072	0.074	0.074	0.071	0.073	0.067	0.066
김천시	0.510	0.493	0.476	0.427	0.369	0.3	0.302	0.276	0.241	211	0.198	0.193	0.191	0.197	0.207	0.210	0.214	0.206	0.203	0.197	0.190
문경시	0.246	0.198	0.204	0.233	0.239	0.2	0.228	0.195	0.172	153	0.147	0.144	0.145	0.148	0.157	0.159	0.160	0.157	0.154	0.148	0.143
봉화군	0.138	0.106	0.085	0.103	0.112	0.1	0.122	0.108	0.096	089	0.085	0.084	0.081	0.083	0.086	0.088	0.088	0.085	0.081	0.078	0.078
상주시	0.281	0.268	0.262	0.274	0.258	0.2	0.231	0.202	0.171	150	0.144	0.138	0.138	0.141	0.144	0.147	0.148	0.142	0.140	0.136	0.129
성주군	0.183	0.154	0.138	0.149	0.154	0.1	0.145	0.123	0.109	092	0.085	0.082	0.086	0.085	0.092	0.094	0.092	0.089	0.088	0.084	0.082
안동시	0.540	0.552	0.562	0.499	0.427	0.3	0.324	0.292	0.253	218	0.209	0.203	0.204	0.208	0.220	0.221	0.222	0.211	0.209	0.201	0.193
영덕군	0.131	0.108	0.086	0.105	0.124	0.1	0.136	0.122	0.109	101	0.096	0.094	0.090	0.093	0.098	0.100	0.101	0.102	0.100	0.095	0.096
영양군	0.142	0.111	0.126	0.206	0.228	0.2	0.212	0.166	0.117	105	0.097	0.093	0.087	0.092	0.094	0.096	0.094	0.095	0.095	0.091	0.090
영주시	0.383	0.393	0.378	0.341	0.290	0.2	0.226	0.210	0.187	160	0.157	0.158	0.159	0.165	0.177	0.179	0.176	0.165	0.160	0.155	0.148
영천시	0.251	0.230	0.236	0.242	0.235	0.2	0.204	0.175	0.155	136	0.131	0.123	0.120	0.121	0.125	0.125	0.127	0.123	0.122	0.118	0.113
예천군	0.163	0.184	0.185	0.198	0.197	0.1	0.180	0.169	0.160	147	0.147	0.149	0.154	0.160	0.172	0.180	0.179	0.174	0.171	0.166	0.155
울릉군	0.137	0.140	0.091	0.128	0.159	0.1	0.147	0.143	0.120	117	0.109	0.117	0.112	0.117	0.118	0.129	0.123	0.124	0.115	0.115	0.104
울진군	0.174	0.119	0.106	0.166	0.192	0.1	0.198	0.173	0.150	137	0.128	0.121	0.122	0.120	0.127	0.130	0.131	0.126	0.125	0.120	0.113
의성군	0.127	0.101	0.083	0.085	0.090	0.0	0.095	0.085	0.080	071	0.067	0.068	0.066	0.068	0.071	0.072	0.072	0.071	0.070	0.071	0.069
청도군	0.166	0.137	0.120	0.166	0.177	0.1	0.152	0.128	0.091	087	0.083	0.082	0.080	0.082	0.086	0.087	0.087	0.085	0.083	0.080	0.077
청송군	0.137	0.120	0.098	0.102	0.113	0.1	0.116	0.111	0.095	083	0.080	0.078	0.076	0.081	0.082	0.086	0.089	0.086	0.087	0.081	0.080
칠곡군	0.779	0.674	0.595	0.543	0.497	0.4	0.419	0.388	0.338	294	0.273	0.264	0.257	0.259	0.262	0.263	0.259	0.242	0.235	0.228	0.213
포항시	0.482	0.418	0.378	0.358	0.333	0.3	0.289	0.255	0.225	200	0.194	0.190	0.193	0.199	0.211	0.214	0.217	0.209	0.207	0.201	0.190

* 출처 : 통계청(2023) '22년 기준 / 소멸 고위험지역 (0.2미만)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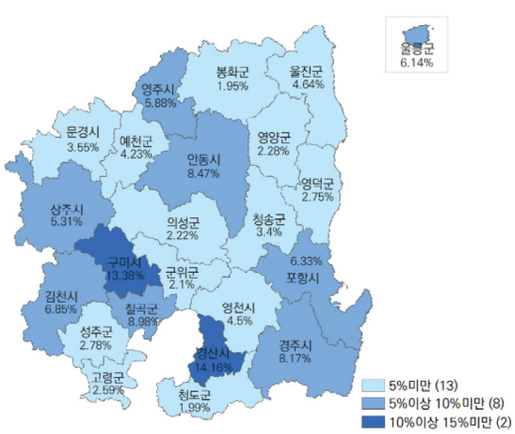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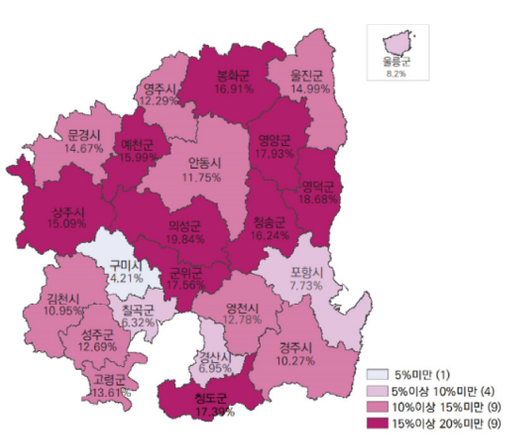
경북 인구소멸 현황

▪ 2037년 8곳 시·군 **고령화율 50% 이상** : 21.7%('20) → 38.1%('37)

20~30대 청년1인가구 분포(2019)



65세 이상 고령1인가구 분포(2019)



* 출처 : 경북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1)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15

경북관광 현황

- 경북지역 방문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20 153백만명→ '23 178백만명)
- 2022년 기준 전국 관광객 수 전체 3위 기록 : 경기(604백만명), 서울(559백만명), 경북(178백만명), 충남(158백만명)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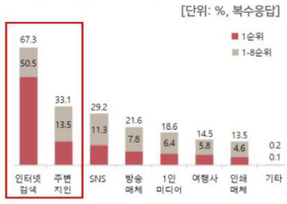
경북관광 현황

- 경북관광 여행 시 **"볼거리·식음료·숙박시설"** 고려하고, 20만원 이하 비용 지불 의향
- 경북 내 "관광명소 및 잘 알려지지 않는 조용한 장소 등" 선호

Q1. "경북 관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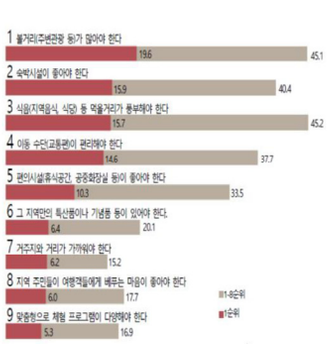
Q3. 경북 여행계획 수립 시 관련 정보 수집처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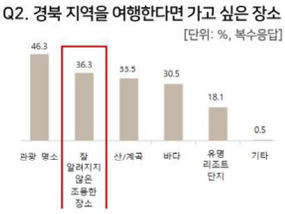
Q5. 경북여행 계획 시(코로나 이후) 주요 고려사항

[단위: %, 복수응답]



Q2. 경북 지역을 여행한다면 가고 싶은 장소

[단위: %, 복수응답]



Q4. 경북여행 시 예상 비용

→ 1박 정도의 숙박의 고려한다고 해석 가능

*출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2022)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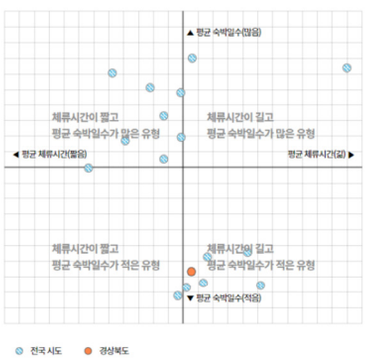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17

경북관광 현황

- 경북관광 여행 시 체류시간이 길고, 숙박일수가 적은 체험형 관광지 선호
- 경주·포항·영덕 등 동해안권이 상위권 검색

체류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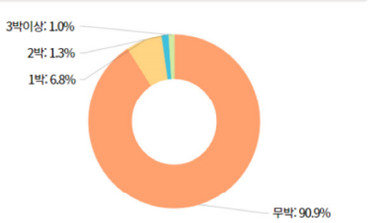
관광진단 지표 현황

전년 대비 지표 변화

검색 목적지 TOP 10 (식음료 제외)

순위	이름	검색 수
1	불국사	246,409건
2	죽도시장	232,403건
3	호미곶해맞이광장	205,881건
4	첨성대	195,875건
5	영일대해수욕장	183,384건
6	동궁과월지	162,261건
7	강구항	147,697건
8	경주월드	142,938건
9	보문관광단지	142,880건
10	대릉원	120,380건

숙박일수별 방문자 수



* 출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2022)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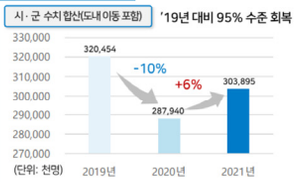
18

경북관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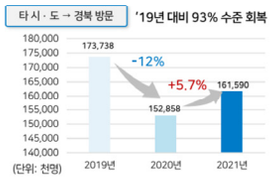
- 경북 내국인 관광객 수는 광역 지자체 중 전국 3위, '19년 대비 95% 수준 회복
- 경북 내국인 관광 지출액은 광역 지자체 중 전국 7위, '19년 대비 89% 수준 회복

내국인 방문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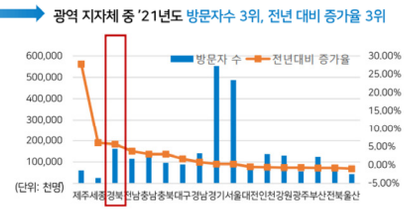
시·군 수치 합산(도내 이동 포함) '19년 대비 95% 수준 회복



타 시·도 → 경북 방문 '19년 대비 93% 수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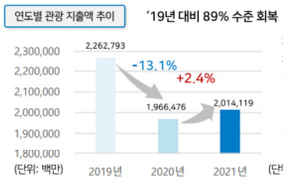


광역 지자체 중 '21년도 방문자수 3위, 전년 대비 증가율 3위



내국인 관광 지출액

연도별 관광 지출액 추이 '19년 대비 89% 수준 회복



월별 관광 지출액 추이

광역 지자체 중 '21년도 관광 지출액 7위, 전년 대비 증가율 2위

* 출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2022)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19

2030 경북관광 비전

비전 및 목표

“리얼 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

※ 방한관광객의 10%

* 출처 : 2030 경북관광비전(2023, 경상북도)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20

2030 경북관광 비전

* 출처 : 2030 경북관광비전(2023, 경상북도)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경북관광 현황 및 분석
21
2030 경북관광 비전
관광
중핵도시
지역주도관광지
관문도시
(내륙형)
관문도시
(해양형)
스마트
관광도시
확대
1개소 → 3개소
경북관광
통합플랫폼
'투어054'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경북
관광기업
지원센터
스마트 · 디지털 기반 혁신 지원
글로벌 연결망 극대화
해외홍보센터 설치
전담여행사 협력체계 구축
한국방문의해 연계 VISIT 경북
K-키친프로젝트
캠핑 & 농촌관광
이색숙박 & 야간관광
반려동물친화도시 + 무장애관광
천년건축 워케이션빌리지
먹고
놀고
자고
함께
머무는
장기체류형
여행모델개발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Ⅲ.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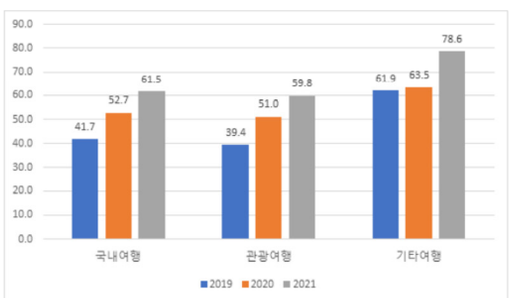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3

지방소멸 vs 지역관광

- **지역 문화·관광의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인가?
-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1인의 연간 소비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여행객 수는 **61.5명**(2021년 기준)으로 추정
- **관광객 유입**은 인구감소지역 고용 및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관광 관련 인프라가 조성 수준에 따라 고용 및 생산효과의 격차가 나타남



* 출처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4

지방소멸 vs 지역관광

- 지역 문화·관광의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인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이 고용·생산에 긍정적 효과 입증!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 ·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출처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5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

- 재택원격근무, 디지털 기술향상은 **"디지털노마드(원격근로자)"**라는 새로운 근무 형태와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시장을 발생시킴
- 포르투갈 마데이라섬 폰타 두솔의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 유럽 최초의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조성 / 인구 8천명 작은 도시의 경제 활력소
  - 프로젝트 이후 2년간 137개국의 원격 근로자 방문
- 이 성과로 인해 약 25개국이 원격근무 근로자 대상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23)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6

제2의 고향만들기 프로젝트

- 일본 관광청의 경우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여행, 다시 돌아가는 여행"이라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 ·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 기획 · 추진
- **야마나시현 고스게촌 (마을호텔)**
  - 빈집을 객실로 리모델링하여 마을 전체에 객실이 분산된 형태의 호텔 운영
  - 도쿄 도심 2시간 방문 위한 접근성 정비/유명 요리사를 초빙하여 창작요리 제공 등
  - 방문객 수 221% 증가 : 8만명('14) → 18만 명('18)
- **카가와현 나오시마쵸 (예술의 섬)**
  - 다카마쓰 항구로부터 고속선으로 30분 정도 거리 위치
  - 현대 미술작품이 섬 내 항구, 주택에 설치, 미술관 등 다양한 예술체험 가능
  - 나오시마 관광객 증가 : 10만명('13)→75만명('19)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7

중앙정부 사업 활용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시작하여, 현재 지자체 청년 마을사업으로 지속 운영 중
- **성과** : '20년에 80여명의 전국 청년 대상으로 20개 프로젝트 수행, 16개 공간 조성, 5개 팀 청년 창업
- 시사점 : 지역 내 일자리 매칭 위해 이동성 및 접근성에 대한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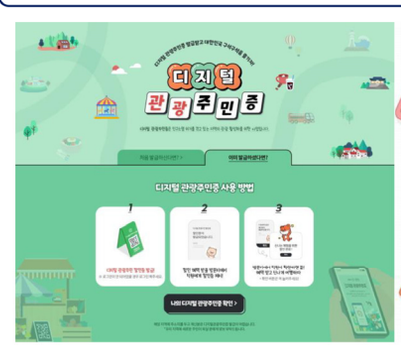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8

디지털 관광주민증

-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심 형성과 방문자경제(visitor economy) 활성화 목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평창·옥천에서 2022년부터 시작
  - 디지털 관광주민증 :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 활용 지역 내 숙박·식음·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예주민증
- 2023년부터 **11개 지역**(부산 영도구, 정선, 단양, 태안, 고창, 신안, 고령 등)에서 200여건 할인혜택(숙박,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수목원, 생활촌 등) 제공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29

생활관광 프로그램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는 체류관광을 통한 지역방문 및 생활인구를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2020년부터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중
- 2023년에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13선'** 선정하여 운영
  - **살아보기 생활관광 :** 최소 3일 이상 지역에 체류하면서 현지인이 된 것처럼, 그 지역의 생활양식을 체험해보는 체류형 여행상품
  - 속초 속초오실(2박3일), 통영 슬기로운 전복 따기(2박3일~3박4일), 충주로 oh개!(2박3일) 청주 문의와유(2박3일), 반반전주(2박3일), 땅끝마실(2박3일~6박7일) 등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30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 '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
- **경북형 듀얼 라이프 :** 지역과 특별한 관계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순환 및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 인구 의미
- 경북은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구성하여 정책 실행
- 듀얼라이프 통합플랫폼 구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31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경상북도 23개 시군 핵심사업(안)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32

워케이션 in 경북

- 경상북도 경북형 워케이션은 MZ세대 대상 국내 여행 서비스 플랫폼인 프립과 협업하여 '고즈넉한 경북에서 일과 쉼을 온전히'라는 주제로 4개 지역(문경, 포항, 의성, 경주)에서 **"일쉼동체"** 상품 판매 중
- 주요 혜택 : 숙박 할인 및 공유오피스 제공 등
- 정보제공 :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일쉼동체 경북 워케이션'

운영 프로그램 소개

경북 워케이션

참여자격 | 기업 재직자 혹은 4대보험 가입된 프리랜서 등 **운영시군** | 포항, 경주, 문경, 의성
참여일정 | 최소 2박 3일부터 최대 6박 7일까지
참여혜택 | 숙박할인, 공유오피스 제공, 웰컴키트 증정 (소진시 종료)
필요사항 | 신청서류 제출 및 여행자보험 가입 동의

경북 패밀리베케이션

참여자격 | 가족 단위의 일반 관광객 **운영시군** | 울진, 영주, 성주, 김천, 상주, 봉화, 포항, 안동, 경주, 영양, 칠곡, 영천
참여일정 | 최소 1박 2일부터
참여혜택 | 할인금액 적용된 상품 제공
필요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동의

*출처 :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내용 참조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결론 및 제언

34

결론

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 지역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국내외 수요창출에 주목하고, **체류형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에 정책 목표 설정
- 체류형 관광 활성화 위한 숙박여행객 만족도 제고 및 야간관광 매력도 증진 필요

2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한 교류 및 경험 제고

- 지역 구성원과 새로 유입된 인구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발생하는 것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포인트로서, 주간과 야간활동의 안전성·편의성 증진 시책 추진 필요

3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 및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 구체적인 컨셉(건축, 역사, 상품 등)과 독특한 아이템 통한 독자적인 관광매력 개발 통한 관광객 유입 증가 유도
-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운영 위해 사전조사와 노하우가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하여 사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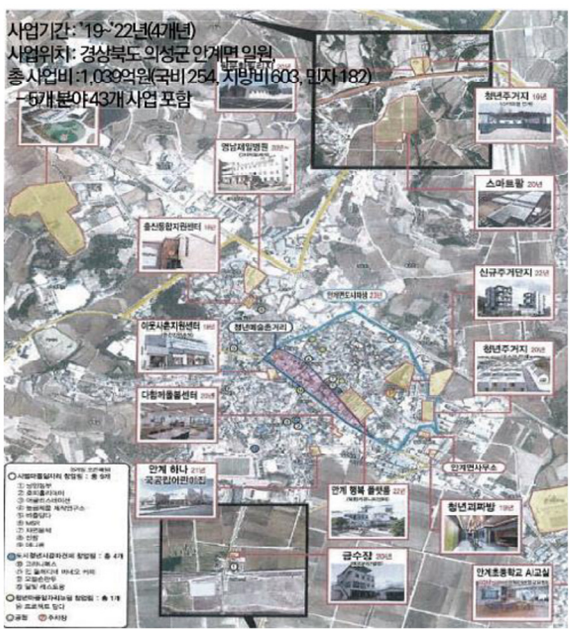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결론 및 제언

35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 **이웃사촌 시범마을** : 인프라를 농촌에 지원해 청년을 유입하고, 청년 유출을 감소시키자는 일종의 인구 댐 조성 사업
- 경북 의성 서부 7개면에서 안계면을 중심 거점으로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청년 유입의 주요 사업**
  (청년창업과 청년농부 육성)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도시청년 의성군 정착/창업지원(창업비용, 교육 등)
  - 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 의성군 정착 희망 청년농업인 육성(수당, 교육 등)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결론 및 제언

36

리플레이스 & 화수헌

- 지역 유휴자원(한옥, 적산가옥, 정미소 등) 활용 새로운 관광명소로 브랜드화
- **지역 맞춤형 자원개발 통한 경쟁력 확보 사례**
- ㈜리플레이스는 2017년 경북 유턴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후
- 주요사업으로 **로컬 콘텐츠 개발**(공간 및 여행상품) 등
  -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 별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종합 토론

좌장 |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토론 |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박봉철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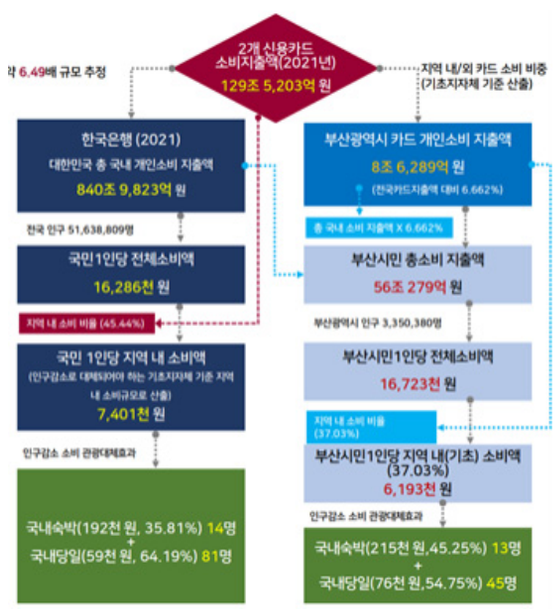
토론문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 관광지 및 축제 등이 활성화되면 숙박, 식당, 상점 등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인하여 각 지자체에서 관광지 등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총 1,691건 중 문화관광 27%, 산업일자리 24%, 주거 21% 순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분야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지역관광이 인구감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비 감소액에 대한 관광대체소비규모 분석결과: 2021국민여행조사 반영〉에 따르면, 인구 1인 관광대체소비규모는 국내숙박관광객(192천 원, 35.81%) 14명, 국내당일관광객(59천 원, 64.19%) 81명이며, 부산시 경우는 숙박국내숙박여행객(215천 원, 45.25%) 13명, 국내당일여행객(76천 원, 54.75%) 45명, 경남도의 경우는 숙박여행객(127천 원, 40.35%) 24명, 당일여행객(57천 원, 59.65%) 80명으로 나타났다.



◀ 분석절차 개념도, 전국/부산

주1. 대한민국 총 소비지출액:
국내소비지출액(한국은행, 2021.3) 활용

주2. 전국 숙박/당일 여행 비용 및 비율:
1회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여행경험치), 여행지별 국내여행횟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2021) 적용

주3. 외국인 1인여행 소비액:
국제수지(한국은행, 2021)의 여행수지 중 일반여행수지를 '방한외래관광객수(법무부, 2021)'로 나눈 값에 환율(2022.3 종가인 1212.1원) 적용

❍ 분석결과, 부산시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1인이 유출되었을 때 대략 숙박여행객 9명, 당일 여행객 30명, 경남지역의 경우는 대략 숙박여행객 15명, 당일여행객 50명이 방문하였을 때 지역경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분석결과(2021년 기준)〉

(단위: 천 원, %, 명)

구분	인구수	카드소비액 (BC/신한)	전국대비 지역카드 소비비중	지역 내 소비규모 (추정)	1인당소비액			관광대체규모	
					전체	지역 내	비중	숙박	당일
부산	3,350,380	8,628,889,959	6.662	56,027,869,291	17,728	6,193	37.0	13	45
동구	87,679	167,723,807	0.129	1,089,040,139	12,421	3,417	27.5	7	25
서구	105,164	205,218,510	0.158	1,332,495,362	12,671	3,128	24.7	7	23
영도구	110,638	222,713,717	0.172	1,446,092,728	13,070	4,437	33.9	9	32
금정구*	228,049	559,459,503	0.432	3,632,602,114	15,929	5,510	34.6	12	40
중구*	40,524	55,563,192	0.051	432,198,558	10,665	3,943	36.9	8	28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분석결과(2021년 기준)〉

(단위: 천 원, %, 명)

구분	인구수	카드소비액 (BC/신한)	전국대비 지역카드 소비비중	지역 내 소비규모 (추정)	1인당소비액			관광대체규모	
					전체	지역 내	비중	숙박	당일
경남	3,314,183	7,307,986,765	5.6	47,451,170,337	14,318	7,689	53,7	24	80
거창군	61,073	80,602,621	0.062	523,357,362	8,569	6,579	76.8	21	69
고성군	50,478	56,442,222	0.044	366,482,535	7,260	4,399	60.6	14	46
의령군	26,322	23,852,973	0.018	154,878,699	5,884	3,562	60.5	10	34
밀양시	103,525	132,703,628	0.102	861,652,143	8,323	5,205	62.5	17	54
사천시*	125,383	229,101,787	0.177	1,487,570,829	11,864	7,636	64.3	24	80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 내 소비 비중과 지역관광지출액으로 대체로 지역 내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관광 소비지출액이 적은 지역일수록 대체 여행객 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정주인구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내 관광소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지역 내에서 소비/관광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발표자료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지역마다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지를 확대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상남도 관광지 수는 2018년 182개소에서 260개소로 78개가 증가하였지만, 입장객 수는 2.7% 감소하였고, 부산시는 관광지수가 6개 증가했지만, 입장객 수는 27.1% 감소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한 조사(쿠키뉴스, 2023.9.13.)에 따르면, 응답자의 54.2%는 '지방관광지가 지역특색을 담지 못했다', 54.3%는 '지방 관광지를 잘 알지 못한다'로 응답하고 있다. 지역에서 많은 관광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유사한 형태/유사한 콘텐츠가 많아 특정 지역으로의 여행 이유를 찾지 못하고,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익스트림을 지향하는 관광지는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지속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에 관광트랜드에 대한 민감도, 관광지에 대한 정보/설명이 미흡한 점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분명 인구감소시대에 지역 체재/교류 인구증대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관광진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지를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역관광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관광소비트랜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관광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 내 관광소비 규모 확대, 관광 지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전략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 아울러 인구감소시대에 관광만이 지역인구문제의 해결책인가? 인구5만여 명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관광객 320만 명, 인구 4만여 명의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 관광객 140만 명 같이 관광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극상이나 인구감소를 넘어 관광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도시를 목표하는 지, 지역에서 지향하는 지역관광의 모습과 여행객에게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목표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의 여행객이 지역정주에 긍정적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면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지역민의 지역 외 소비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이것이 지역정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박봉철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는 89개이며, 그 중 5개(부산광역시 3개구, 대구광역시 2개구)가 도시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은 중앙정부에서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는 지역소멸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대도시의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사회의 위기가 비단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구감소 또는 인구위기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상주인구 수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또한 현행 법률에 의거, 지역의 위계와 지원에 따른 범위를 결정할 때에 상주인구 수를 주요 지표로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현행 법정계획의 경우 상당부문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상주인구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경우 지역마다 나타나는 경향이 다를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다다른 농어촌의 경우 상주인구 수의 급감으로 인해 그야말로 행정구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편으로, 비교적 개발이 진행된 도시지역과 많은 인구감소지역들은 상주인구 급감과 함께 지역활력 저하의 문제점들이 확연히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현상의 대안으로 중앙정부는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상주인구를 포함한 외국인 인구와 한 달 내 1일 3시간 지역에 머무르면서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이행한 전체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완벽한 산정에 따른 자료구축, 지역적 특성 반영 등의 보완이 요구되긴 하나,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지역활력의 척도로써 활용되는 주요한 지표라 판단됩니다.

❍ 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인구 증강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위한 관광 활성화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사실 관광의 경우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요건을 조성하여 거점을 마련하는 것과 지역자산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본 토론자는 후자를 우선하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자가 이루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즉 지역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생활인구를 증강하고, 이의 수단으로 관광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후 부가적인 효과로 상근인구와 상주인구의 증가를 이끌어내어 생활권 또한 확대시키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 위의 이상적 구조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는 지역 주도적 계획수립,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효과기반의 사업 선정, 여건진단 모니터링 등의 전략적 체계를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주도적 계획수립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관광 수용력 평가를 통해 생활인구 측면에서 증강할 수 있는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재정적 지원은 앞서 발굴한 사업의 합리적 제안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 또는 기타 단체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지방소멸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각종 기부채납 등이 이에 속할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 후 실제 사업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효과기반의 평가를 통해 지원 및 이행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의 영향도를 파악하여 계속적 개선을 이뤄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위기 극복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관광 활성화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임에 따라 앞서 필요한 부문의 중점 고려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 또한 함께 대비해야합니다. 즉 지역 공동화, 지역환경 파괴, 관광자원 관리소홀, 손실 등으로 인한 지역활력 급감, 원주민의 극단적 소외감 등 관광 활성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따른 대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 인구위기 극복과 지역활력 증강을 위해 관광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생활인구 증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의 대비 또한 철저히 하여 대안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문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1. 관광 활성화가 최선의 대응인가?

- 빼어난 지리적 여건과 문화자원 활용 바람직, 하지만 본질적 접근인가?
- 본질은 경제 활성화. 고용 및 생산력, 청년 인구 확대해야, 문화관광 활용은 차선책
-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뭐가 좋을까?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추구? 제한된 자원과 역량의 선택과 집중 필요. 로마도 되고, 뉴욕도 되려다 다 놓치는 건 아닌지...
- '한강의 기적'에 버금갈 '낙동강의 기적' 일궈낼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무산 아쉬워. 공동의 목표, 열망, 상호 의무에 대한 합의 도출로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복원해야. 최소한 교통이나 물류 등 제한적 영역에서라도 광역행정의 이점 살릴 수 있어야!

2. 관광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해야

- 지방소멸 대응책으로서의 관광 활성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방안이어야 할 것
- 관광전략은 모든 지자체의 전략 중 하나. 차별적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중심의 관광전략 세워야 : 국내 최초인 한려해상국립공원 vs 세계 유일인 부산의 유엔기념공원

1) 세계문화 유산, 제대로 활용하나?

- 세계유산 지역은 국내외 여행객의 목적지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많은 나라에서 유산 관광 활성화 고민 중. 그러나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의 고유성 무너뜨리는 오버투어리즘은 경계해야!

-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경남의 함양, 합천, 고령, 전남의 진도, 화순, 해남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한 지역
- 남계 선원,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판, 가야 고분군, 고인돌, 강강술래 등 보유
- 세계유산은 전 세계인이 관심을 두는 매력적이며 희소성 있는 문화자원, 그 시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정신적 유산, 특히 동양의 문화유산은 서구인에게 더욱더 매력적. 이런 훌륭한 정신자산을 보유하고서도 소멸 위기를 걱정한다면?
- 함양의 남계 선원 : 201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함양은 남부 내륙 중심지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갖춰 물류와 유통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인구감소???
- 정부(문화재청)에서도 2021년에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대상지로 남계 선원을 선정하며 세계유산의 가치 알리기에 적극적
- 인쇄문화의 종주국의 상징인 팔만대장경판, 조선시대 사설 교육기관이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의 중심 공간인 서원 등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은 우리만의 정신 문화 콘텐츠로 대체 불가능한 관광자원
- 정부,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 등 전통문화 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세계에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지속이 가능한 방안 마련에 머리 맞대야!

2) 지역 창생형 문화 분권해야

- 기존의 차별적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자원 활용과 별도로 자체적인 문화자원 창출과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자원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이 선도하는 문화자원 유치 등 문화 분권 나서야!

3. 국내외 지역 창생 사례

1) 일본 규수 사가현 다케오시의 변신

- 주민수 5만 명 동네에 연 100만 명이 찾게 된 계기는 도서관의 변신. 책만 읽던 도서관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변신시킨 문화 창생 덕분
- 2000년 10월 개관 초기에는 썰렁. 독서 꺼리던 사람들을 유혹할 방안 고민. 개방형 서가 확대, 이용 시간 연장(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65일 개방), 카페 입점, 책을 보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2013년 새 단장 재개관. 이용객이 25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4배 불어나

2) Bilbao Effect

- 스페인 북부의 쇠락하던 항구도시 빌바오, 세계인이 선호하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일등 공신은 구겐하임 박물관
- 1997년 10월 개관. 기하학적 형태에 금속 외관의 건축 양식에 전 세계 건축계와 미술계 충격, 35만 인구의 빌바오는 구겐하임 개관 3년 만에 1,000억대 세수 증대 맛봐

3)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

- 지난 9월 말 현재 2만 3,104명인 65세 이상이 6,078명인 군
- 코로나로 중단했다 2년 만에 재개한 올 1월 끝난 축제에 관광객 130만 명 찾아. 물고기를 돈을 주고 사서 연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끌어모아. 미국의 CNN에서 2011년에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 이색 겨울 축제
- 독특한 자연 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 통한 이미지 변신 노력 강화해야 함. 문화가 뒷받침될 때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4) 이건희 컬렉션 논리라면 지역문화는?

- 2021년 4월 28일, 삼성가, 12조 원 상당의 상속세 납부와 1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이건희 전 회장 소유의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기증한다고 발표
- 이후 문체부는 부산의 해운대구 등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유치하려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약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을 확정
- 송현동이 정치경제 문화의 중심지에 있고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 공예박물관 등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2027년 개관이 목표, 정부와 서울시는 이곳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 그럼 지역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시설 2,800여 개 중 36%가 수도권에 소재, 미술관의 경우, 전국 20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 정부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방은 미술과 박물관 유치는 불가능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는 불가능한 일

-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 해외방문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 한국 여행지로 집적의 효과 지금도 막강. 지방소멸 위기라면?
- 전국 지자체에서 연대해서 비수도권으로의 유치를 주장했더라면?
- 자연 자원과 정신 자원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자원은 만들어내는 문화 분권 운동 펴야!

5) 관광전략 수립 시 점검해볼 사항

- 남해안 관광과 수도권 관광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비수기에도 와볼 만한 매력 포인트는?
- 우리 고장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고 우리 지역과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우리 지역을 찾아온 방문객 이해하기 : 연간 관광객 규모, 출신 국가나 지역, 체류 기간, 이동 수단, 관광 형태, 지출유형과 규모, 불만 사항
- 우리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됐나 :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호텔에서 어떻게 방문객을 맞이하나? / 문화유산을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나? / 교통수단, 숙박시설, 음식 등 기본적인 관광객 편의 정보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
- 한자 중심인 문화유산 소개 글 이해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디지털 시대, 웹사이트나 쇼츠는 제공하고 있나?,
- 팜플렛도 필요하지만, 관광버스, 운전기사, 택시 기사, 전통시장의 상인 등 관광객들이 관광 중 만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관광 도우미 역할 할 수 있어야.

토론문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국가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20년 5,183만 명이던 인구는 2022년 5,14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1.24명이던 출산율도 2022년 0.78명으로 극감 하였습니다.

○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더욱 심해져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인구뿐만 아니라 생산, 고용, 기업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지방을 떠나고, 지역은 생산성 저하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생활 인프라가 확보되어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지방소멸 대응에는 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 순 이동률 등 8개 지표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 주도의 상향식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주거·복지 등 36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도 도입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지원 중입니다.

○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은퇴자 등의 지방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기부와는 '지역 중소기업혁신 공모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2022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신설하여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 균특회계 상 보조율을 10%p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창업 기업의 경우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답례품을 개발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또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매년 9월 4일을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 일자리창출, 청년의 창업지원,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 세제혜택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개념에 포함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 하여 융합형 스마트팜 단지조성과 같은 지자체·민간 주도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거점지역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토론문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1) 이용자 입장에서 : 지자체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사업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문

①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 어떤 혜택? 글쎄, 내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②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다 : 관 주도의 프로그램이라는 인상, 이용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얼른 생기지 않는다.

③ 정보가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 한번 신청해 보려다가 포기했다. (워케이션을) 호텔, 숙소 예약하듯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일까.

▼ 경북나드리, 경북형 워케이션 안내(https://tour.gb.go.kr/guide/noticeView.do?page=1&idx=19414)

경북형워케이션

경주 롱황맨션, 인히어게스트하우스 / 포항 라한호텔, 스테이호텔 - (주)사이시옷 smartstore.naver.com/adiden7 054-743-3033

경주 / 준주관 - (주)디어먼데이 www.dearmonday.io 1668-4574

경주 / 서악마을, 블루원리조트, 라한호텔, 힐튼호텔, 베스트웨스턴호텔, 코오롱호텔 - (주)다음레저 www.withple.com 02-725-2005

의성 / 논밭에 - (주)메이드인피플 www.nonvatte.com 0507-1494-9088

문경 / 낄낄아 놀자 - http://replace724.co.kr 054-555-1629

의성/금강장 - 사회적협동조합멘토리 http://url.kr/9f8sdw 010-2999-9526

경북패밀리베케이션

울진 금강송에코리움&영주 무섬마을 힐링여행 - 승우여행사 www.swtor.co.kr 070-4441-6355

성주, 김천, 상주 트래킹 투어 - 동백여행사 www.dongbaektour.com 02-2233-3500

경북으로 떠나 힐링휴가여행 - 굿모닝여행사 www.qmtr.co.kr 02-6745-0110

가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도시 안동 베케이션 여행 - 테마캠프여행사 www.themecamp.co.kr 02-735-8142

우리가족 명상여행, 중머세대 문화여행 - 문화콘텐츠생산자협동조합 www.ktourtop10.kr 053-217-3900

경주 일로오락 - (주)사이시옷 smartstore.naver.com/adiden7 054-743-3033

김천&성주 슬기로운 경북여행, 영천 패밀리베케이션 체험여행,

군위 주억여행, 영주&안동 가을여행, 영천 와이너리 체험, 청도 가을여행, 칠곡 보물투어 / (주)여행공방 www.tour08.co.kr 1644-7786

가족건광과 함께하는 라온힐조 한의마을 - (주)시티서커스 https://smartstore.naver.com/citycircus 070-8885-8812

기타문의
카카오톡 채널 '일쉼동체' 또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ICT전략팀 (054-740-7235)

2)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할 듯

① 스토리가 있었으면 : 누구를 주요 대상(또는 타깃)으로 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상이 되게끔

② 정보가 하나로 모여 있으면 : 너무 산재한 메뉴는 혼란, 효과 감소, 기초지자체 단위의 메뉴 제공에서 적어도 광역 단위로 넓혔으면

③ 클릭 하나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 내용 확인에서 신청서 제출, 예약까지 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3) 관은 뒤에서 민의 도우미(보조자) 역할을 하는 편이 예산 활용(절감), 사업효과 등의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① 왜 관이 전면에 나서면 재미가 없을까 : 관은 제약이 많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실패해서는 안 되며, 감사 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움

- 관 : 이런 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이용해 보시든지. (소극적인 제안)
- 민 : 이런 작당을 해 봤고, 일을 직접 꾸며 봤습니다. (적극적인 활동)

② 지역을 찾아오는 이유 : 관심과 호기심이 8할, 관광의 개념 크게 확대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민간의 창의적 생각과 활동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빌릴 필요가 있음.

③ 관은 무대 장치 역할만 하고, 민간이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좀 더 확실한 역할 분담을 검토했으면.

▲ 주민이 골목상권 조성한 경주 황리단길
(http://www.boeun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25)

▲ 책방이 들어오니 마을이 바뀐 김제 오느른책밭
(https://www.youtube.com/watch?v=zl6rkudcz4g, 캡처)

토론문

제3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 연안·해양, 국가·지역경제의 新성장축 →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문

❍ 다층적 초협력형 경쟁사회 도래에 따라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지역 주도로 해양공간·자원의 발전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해양경제 기반의 지역 신성장체계 구축·이행

* OECD(2016)는 2010년 해양산업의 세계 부가가치가 1.5조 달러에 달하여 2030년에 2배인 3조 달러로 전 세계 부가가치의 2.5%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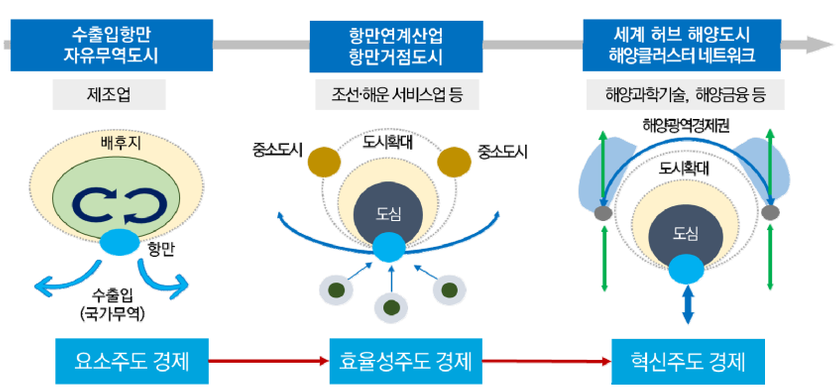
* 해양산업의 일자리도 2010년 3,100만 개에서 2030년 4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양관광,** 해상풍력, 해저자원 개발, 항만사업 등 해양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50% 분석**(UNWTO, 2023)

*** 세계 해양관광시장 '22~'30년간 연평균 5.7% 성장 → '30년 시장규모 5조 달러 전망**
(GlobeNewswire, 2023)

❍ 과거 쇠퇴했던 항만·수산도시는 해양경제의 성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해양도시와 해양경제 광역권으로 발전

〈글로벌 해양도시의 출현과 해양경제광역권 형성〉



자료: Lee, S.W. and César Ducruet(2009), Spatial glocalization in Asia-Pacific hub port cities: A comparison of Hong Kong and Singapore

- 1980년대 세계화, 신자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항만도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본격적 세계경쟁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단순 물류가 아닌 해양 관련 지식·기술서비스업과 연계한 글로벌 해양도시 거점과 해양경제광역권 형성

❍ 우리나라 연안·해양지역은 높은 발전역량과 해양산업의 강력한 정책의지 보유

→ **해양·국토의 상생공간인 '新연안·해양경제 성장체계'으로 구축**

- 연안 지역에는 고도성장기부터 조성된 대형 항만·산단·주거단지·도로 등이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고, 해양 지리적 이점인 개방성과 동질성 등 협력의 지정학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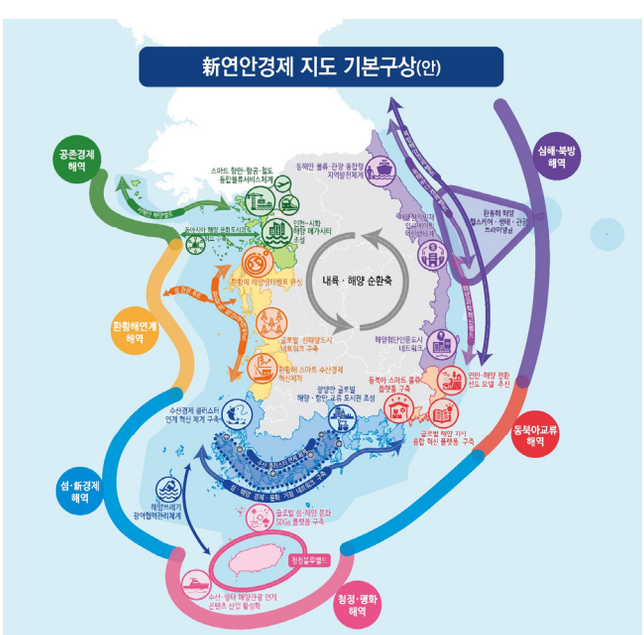
- 연안·해양지역은 저성장 극복과 청년인구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신(新) 경로 창출을 위해 노동 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지식 집약적 해양신산업 추진

* 2019년 기준, 전체 해양수산 관련 기업 99,531개소, 전체 기업의 2.7%(265.6조 원 매출)

〈우리나라 연안·해양지역의 현황〉

생산 2019년	인구 2022년	재정 2022년
1인당 GRDP 전국 3,717 만원 연안 4,488 만원 | 전국의 1.2배	생산가능인구 증감 '17~'22년 전국 -0.61 % 연안 -0.12 % | 전국比 ▲0.49%p	1인당 재정지출 전국 775 만원 연안 777 만원 | 전국比 ▲2만원
GRDP 총액 전국 1,927 조 연안 650 조 | 전국의 33.7%	주민등록인구 수 전국 5,158 만명 연안 1,459 만명 | 전국의 28.3%	재정자립도 전국 49.9 % 연안 22.3 % | 전국比 △27.6%p

자료: 황재희 외(2022),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개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 최지연 외(2022)

□ 하나의 남해안, 섬·해양수산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연안경제 전진벨트 구축

❍ 다도해~함평만~강진·득량만~순천만~여수·광양만~한려수도~마산만~낙동강하구~부산만에 이르는 '하나의 남해안'을 지역 고유의 뿌리산업과 해양관광레저·항만, 수산산업 등의 연계한 新 연안경제 신성장 전략 추진

→ 남해안의 해양경제·문화·생태적 자산을 해양 관광레저,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에너지, 해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연계한 연안경제 전진벨트 구축

○ **하나의 남해안,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의 완성 추진**

→ 해수부·전남·경남·부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 MOU 체결(202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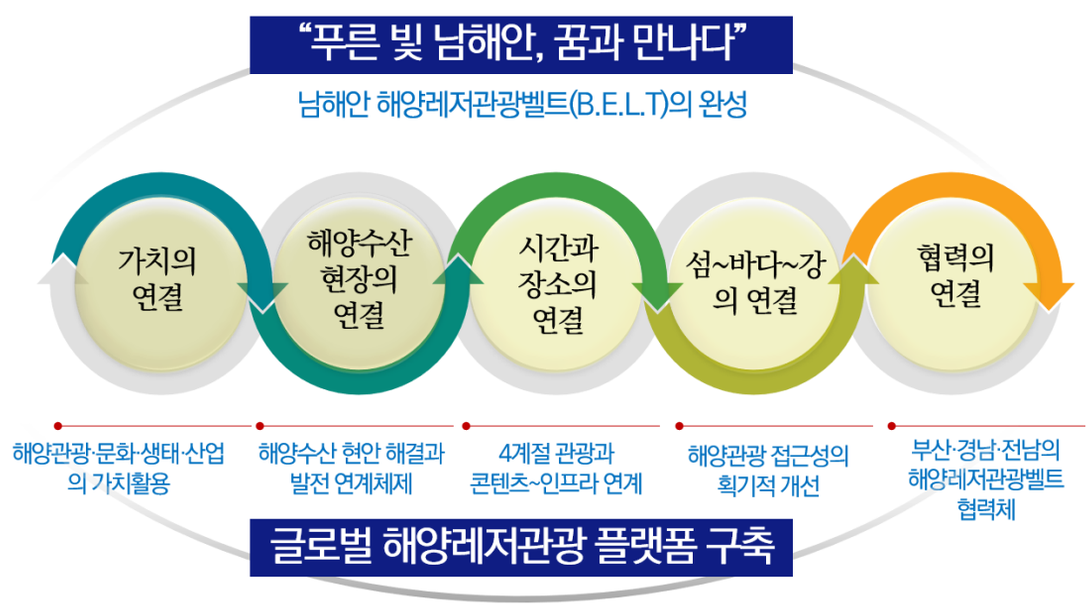
→ 해양레저관광벨트 거버넌스 구축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추진단" 구성·운영

* 지역 주도의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그 간 계획수립 의지 ↑, 이행의지 ↓)

*** 2022년 전국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 58조 원 → 해양관광 시장 규모 64.5%(37조 4,400억 원)**
*** 부산연안(5조 7,200억 원), 경남연안(5조 2,700억 원), 전남연안(4조 9,100억 원)**

(자료: 최일선 외, 2023)

→ Triple K-Ocean B.E.L.T(해양레저관광 복합거점, 연안크루즈, 지역해양레저관광소권역(마리나)) → 해양관광레저 접근성 개선, 해양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관광산업 생태계, 상생협력 거버넌스 등 추진



자료: 최지연 외(2023)

MEMO

MEMO

MEMO

MEMO